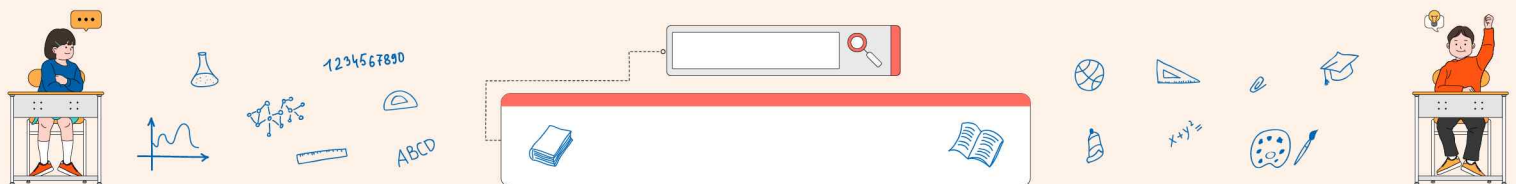


##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8
4	讲义	61
5	퀴즈	83
6	토론	88
7	자료	90



## 학습안내

### 01

#### 과목소개

<한국경제와 학교 교육>은 한국의 학교 교육의 형성, 확대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이 과목은 수강생들에게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인적자본의 축적을 이끌어 낸 학교 교육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현재 한국 교육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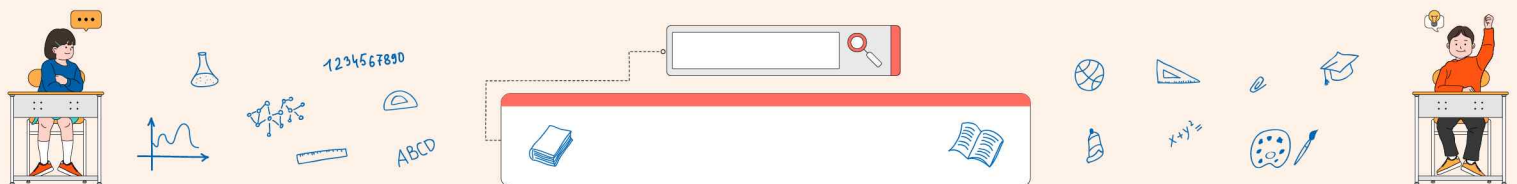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 학습목표

- (1) 한국의 정규 초등, 중등, 고등교육 제도와 비정규 학교 교육의 형성, 확대, 발전과정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의 기틀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이해한다.
- (2) 교사, 재정, 여성의 측면에서 한국 학교 교육이 지닌 역사적 경험과 특수성을 살펴보고, 한국 학교 교육의 발전 과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 (3) 사교육, 평준화,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한국 학교 교육의 직면한 과제에 대해 탐구한다.

### 03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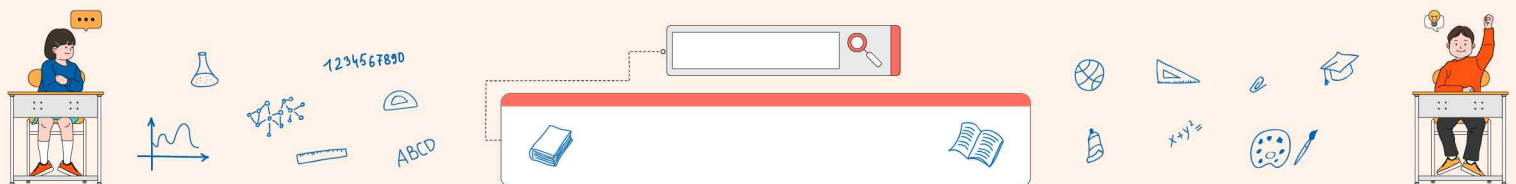
흔히 한국은 부족한 자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고 이야기한다. 가난한 식민지 국가였던 한국이 독립 후 전쟁을 겪으며 황폐화되었지만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데에는 우수한 인적자본의 역할이 상당했다. 이 강의에서는 우수한 인적자본의 축적을 가져온 한국 학교 교육의 경험을 주제별로 학습한다. 이 강의가 수강생들이 한국 학교 교육 성공 사례의 배경, 원인, 결과는 물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명암과 현재 남겨진 과제에 대해 더욱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04

## 주차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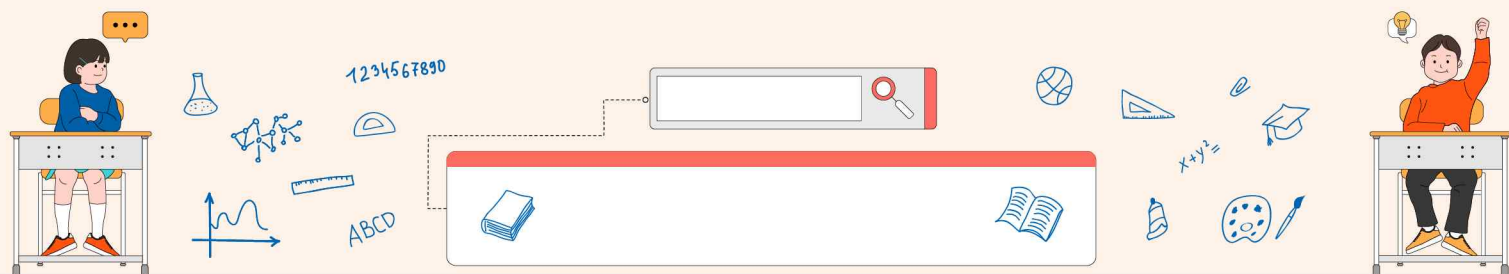
1주차	한국의 학교 교육
2주차	한국 학교교육의 형성
3주차	유아 및 초등교육
4주차	중등교육
5주차	고등교육
6주차	교원
7주차	교육재정
8주차	여성
9주차	사교육
10주차	학교 평준화
11주차	시험성적자료로 살펴본 한국교육의 현황과 과제
12주차	학교 밖 학교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6

주차

교원

6-1

한국의 교원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한국 교육> 강의를 맡은 고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교원'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교원들은 학생들의 교육을 이끌어 가는 핵심 구성원입니다.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학교 교육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먼저 한국 교육에서 교원의 현황, 교원 양성기관의 진화 과정, 교원 노동시장의 변화, 교직의 여성화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실제 교원을 모시고 현장의 말씀을 청취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교원의 현황에 대해 개관해 보겠습니다.

교원 수의 추이는 보통 학교 교육의 팽창 추이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더 많은 학생을 교육 현장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기 보통학교 교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빠르게 교원 수가 늘어난 1920년대 초와 1930년대 중후반은 초등교육이 급격히 팽창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남학생들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이었던 고등보통학교 교원은 1910년대와 1920년대 초반까지 빠르게 늘어나고 그 이후에는 서서히 증가합니다. 식민지 초기에 학교들이 설립되는 시기를 지난 뒤에는 완만하게 성장했습니다.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경우에는 1920년대부터 완만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합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종종 학교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는 만큼 교원 수도 충분히 늘어났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식민지기 초등교육의 경우 보통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920년대 초와 1930년대 중반에 크게 늘어납니다.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날 때 교원의 충원이 늦어지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다소 감소하지만, 이전보다 한층 높아진 수준은 큰 변함 없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식민지기 초에 30명 내외였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20년대에는 5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식민지기 말에는 70명 이상으로 다시 늘어납니다.

보통학교와 소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소학교는 30명대에서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유지됩니다. 일본인 학생 수에 맞추어 학교 설립과 교사 충원이 계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등교육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보통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식민지기 동안 비슷한 추이를 보입니다.

조선인, 즉 한국 사람에 대한 중등교육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교육의 질 측면에서는 적어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보았을 때, 일본인 중등교육과 한국인 중등교육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한국인 여성 중등교육 기관이었던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경우, 고등여학교보다 오히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더 적었습니다. 여성 교육의 기회는 일본인보다 조선인에게 더 제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기관의 1인당 학생 수는 식민지기 말까지 25명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의 교원 수는 빠르게 증가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부터 1990년 무렵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수는 모두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1954년 초등학교 교원은 40,869명, 중학교 교원 9,147명, 고등학교 교원 6,266명이었습니다.

1990년이 되면 초등학교 교원은 136,800명, 중학교 교원 89,719명, 고등학교 교원 92,683명으로 증가합니다. 1990년대에 다소 둔화되었던 교원 수 증가 추이는 2000년대 이후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감소하였지만, 소규모 학교의 구조조정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새로운 학교의 건립과 운영은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교육이 확대된 1980년대부터 교원 수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수도 현재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앞서 봤던 식민지기부터 현재까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를 함께 보여줍니다. 초등교육의 경우, 식민지기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해방 이후에는 꾸준한 감소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80년 무렵까지 학령인구가 계속 증가했음에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점은 교원의 채용, 특히 정부의 교육투자가 꾸준히 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해방 이후 더 높아집니다. 식민지기에 비해 교육 기회가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중등교육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198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교원 수 증가가 학생 수 증가를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초중등 교원의 양적 팽창 과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학교 교육의 확대에 따라 교원 수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식민지기 초등교육의 경우에는 교원 수 증가가 학생 수 증가에 못 미쳤고,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에는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학교 교육의 팽창 속에서 적극적인 교원 충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확대와 팽창 과정에서 교원 채용도 빠르게 늘었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가 1980년부터 감소합니다.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원 수 확대는 지속되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계속 줄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초중등 교원 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6-2

## 교원 양성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초중등 교원의 양적 팽창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교원양성 제도가 변화한 과정을 식민지기부터 현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910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식민지 정부는 처음에는 공립 보통학교 교원을 일본에서 양성된 일본인들로 임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일본인만으로는 늘어나던 보통학교 교원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교사도 양성하는 제도를 수립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에 1년 연한의 사범과 또는 교원숙성과를 부설하여 교사를 양성했습니다. 이후 3년제 임시교원양성소도 설치하여 운영됩니다. 1920년부터는 교원양성강습소가 설치되어 운영되었습니다.

1922년 조선교육령이 개정되면서 관립 또는 공립의 사범학교가 설립됩니다. 사범학교는 1부와 2부를 두었는데 1부에서는 소학교 교원을, 2부에서는 보통학교 교원을 양성했습니다. 사범학교는 보통학교 졸업 후 진학하는 중등과정이었으며, 5년제 내지 6년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고등보통학교나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에 사범학교 연습과에서 1년 교육을 받고 교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1938년 3차 조선교육령은 사범학교의 1부와 2부 체계를 폐지하고 단일체계로 개편합니다. 보통학교를 소학교로 통합하고 교육과정을 합친 데 따른 결과였습니다.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사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교육받고 교사 자격을 취득한 일본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일본에서 고등사범학교나 외국어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역시 부족한 교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고등사범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졸업 후 식민지 교사 근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성제국대학 예과 수료자, 법문학부 졸업자, 수원고등농림학교 졸업자를 무시험 검정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들도 공립학교 교사들과 비슷했습니다.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사립 전문학교 졸업생들이 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식민지기 보통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일본과 달리 별도의 면허 제도는 없었습니다. 소학교 및 보통학교 교원 시험 제1종, 제2종, 제3종이 있었고, 각 시험 합격자는 각각 일본의 소학교 본과 정교원, 심상소학교 본과 정교원, 심상소학교 준교원 면허장 소지자와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도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사립학교 교원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중등교원의 경우 대부분 일본 고등사범학교와 외국어학교를 졸업한 일본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였습니다. 학교 설립이 늘어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과 전문학교 졸업생들에게 무시험검정으로 중등교원 자격증을 수여하고 교사로 임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 문부성에서는 시험을 통해 중등교원자격증을 수여하는 제도도 실시했는데, 식민지 거주자도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 중등교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교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인 교원들이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심각한 교원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팽창하는 정규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정기에는 다양한 초등 및 중등교원 양성 단기과정이 생겨납니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단기교원양성소를 설치했고, 이후 사범학교에 강습과, 속성과, 임시초등교원양성소 등 단기과정을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중등학교에 사범과를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사범학교를 증설합니다.

중등교원의 경우에도 중등교원 양성소, 중등교원 양성과, 중등교원 양성강습회, 임시 중등교원 양성소, 국어교사 양성소 등 다양한 단기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이러한 단기 과정들은 이후 1950년대까지 일부 이어집니다.

한편 정규 중등교사 양성기관인 사범대학이 새롭게 설치됩니다. 1950년대가 되면 중학교 교사는 2년제 사범대학에서, 고등학교 교사는 4년제 사범대학에서 양성하는 체계도 마련됩니다. 실업계 대학을 졸업하면 교직교육 없이 중등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는 일반대학에 교직과정을 설치하여 사범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 후 중등교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1960년대가 되면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던 사범학교가 초급대학인 2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 개편됩니다. 1962년에 10개의 교육대학이 출범했고, 1975년에는 16개로 늘어났습니다.

초등교원에 대한 수요가 계속 팽창했기 때문에 단기 교원양성과정도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1964년부터 1967년까지는 교육대학에 보수교육제도를 설치하고 초급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들이 5주 내지 8주간의 단기 교육을 받은 뒤 초등교원이 되는 길이 열립니다. 1967년부터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후 18주의 단기교육을 통해 초등교사가 되는 임시 초등교원양성소가 교육대학에 설치됩니다.

중등교원에 대한 수요도 커서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직과 외에도 실업교육과, 일반대학 교과교육과, 교육대학원 등 중등교원 양성기관이 늘어납니다. 교육연수원, 임시중등교원양성도 등 단기 양성 과정도 운영됩니다.

1970년대가 되면 이제 초등교원에 대해서는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교육대학이 문을 닫았고, 교육대학에 부설되어 운영되었던 교원교육원도 없어집니다. 1960년대부터 준교사를 양성해온 임시초등교사양성소도 운영을 중단합니다.

한편 새로 생긴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초등교육과를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초등과정 준교사를 양성하기도 했고, 현직 초등교원 중 초급대학 수준의 기초학력에 미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직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중등교원 양성과정은 여전히 교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60년대의 방식이 지속됩니다.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의 실업계 학과 졸업자가 교직과정 이수 없이도 준교사가 되는 제도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1981년에는 과거 2년제였던 교육대학이 이제 순차적으로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됩니다. 명목상 이어져왔던 보수교육제도와 임시초등교원양성소 등도 완전히 폐지됩니다.



1980년대부터는 이제 중등교육의 경우에도 교사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등장했던 실업계 지정 대학 제도가 폐지됩니다. 일반대학의 교직원 이수 인원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성적기준을 상향합니다.

또한 국립 사범대학의 정원을 줄이고, 영세한 사립 사범대학은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는 등 사범계 대학정원을 감축합니다. 1985년에는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을 모두 양성하는 국립 한국교원대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교사 자격제도도 교원 양성제도와 함께 변화했습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기에는 식민지기의 제도가 이어집니다. 교사 면허제와 교사 임용을 위한 자격시험 제도가 실시됩니다. 1948년 교원자격규정이 제정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 교부가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에는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고 교육공무원 자격검정령도 제정됩니다. 교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해졌고, 이후 소정의 강습을 받고 갱신하도록 정했습니다. 교원 자격은 교원양성기관에서의 교육을 통해 취득하는 무시험 검정과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누고, 시험 검정은 다시 전형검정과 고시검정으로 나눕니다.

1963년에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교사 자격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교사 자격으로는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준교사, 교도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를 정합니다. 교육전문직으로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등을 정했는데 이러한 전문직은 자격증 없이 운영했습니다.

한편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나뉘어 있던 것을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으로 통합했습니다. 1953년에 10년으로 정했던 교사 자격증의 기한도 정년까지 유지하도록 연장됩니다. 1964년에는 교원자격 검정령을 제정합니다. 교원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교사 자격증에 담당 과목 표기가 시작됩니다. 또한 상급 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강습을 규정했습니다.

1965년부터는 교육대학원 수료자에게도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하기 시작합니다. 1982년에는 교사 자격 무시험검정 조건을 강화하면서 현재와 같은 교사 자격제도가 정비됩니다. 1988년부터는 교사 자격 검정을 각 대학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하게 됩니다.



현재에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을 졸업하면 각 자격에 해당하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후 교육경력 등이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연수를 받고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교사의 임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한국의 초중등교육이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교사 수요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학교 교육의 확대는 공립학교가 주도했고, 정부는 공립학교에 우수한 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1953년에는 국립교원양성기관 졸업자와 상급자격증 소지자를 국공립학교에 우선 채용하는 정책을 시작합니다. 1963년에는 국공립 사범대와 기타 양성기관 졸업자 및 수료자를 비율을 정해 우선 채용하는 정책으로 정비됩니다. 이러한 국공립 교대 및 사범대 졸업자의 국공립학교 우선 임용제도는 1990년 위헌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국공립대 출신과 사립대 출신이 함께 시험으로 경쟁하는 공개전형 선발제로 바뀝니다.

국공립학교에서는 국공립 교대 및 사범대 졸업자를 우선 임용했지만, 여전히 전체 교사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했습니다.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국공립 교대 및 사범대를 졸업하더라도 교직이 아닌 일반 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수여를 조건으로 한 의무 복무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교육대학에는 1969년부터 1992년까지 학군하사관후보생, 즉 RNTC 제도를 도입하여 남학생들이 졸업 후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군복무 의무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사립사범대학 졸업생과 일반대 교직과정 이수자도 임용했는데 1973년부터 교원 신규임용 순위고사를 실시하여 임용에 활용했습니다.

순위고사는 당초 사립학교 임용에도 활용하도록 했지만, 사립학교는 재정난 등으로 인해 교원 신규임용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1977년부터는 공립학교의 신규임용에 대해서만 실시합니다.

1990년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 임용제도 위헌 판정에 따라, 1991년부터는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실시합니다.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고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경쟁시험을 실시한 이후에도 한동안 해당 시·도에 위치한 교대 또는 사범대 졸업생들에게 지역 가산점을 부과해 우대했습니다.



하지만 중등교원 사범대학 지역가산점 제도는 2004년 위헌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범대 입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는 2010년까지 유예했다가 2011년부터 지역가산점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원을 자체 전형으로 임용합니다. 사립학교에서도 우수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1973년부터는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의 사립학교 임용을 허가합니다. 한편 1982년부터는 사립 초중등학교 경력교사를 공립학교 교사 등 교육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당초 도입된 취지 중 한 가지는 사립학교 재정부담을 줄여 주는 데에 있었습니다.

교원 봉급이 호봉에 따라 결정될 경우 교원 경력에 따라 재정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 사립학교의 경력직 교원이 퇴직하고 신규 교원으로 대체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되다가 2010년대에 논란이 생기면서 요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원양성, 자격, 임용 관련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초등 및 중등교원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반 대학의 교직 이수, 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양성되고 있습니다. 교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무시험 검정제에 따라 보통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후 근무경력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통해 임용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교원을 선발하여 임용합니다. 과거 학교 교육이 팽창하던 시기에는 교원 부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임시 교사 양성 체계가 있었고, 단기간에 속성으로 교사를 양성해 임용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학교 교육이 보편화된 이후로는 반대로 교원의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학교 교육과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임용 과정의 경쟁이 심화되는 변화도 겪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원의 근무시간과 보수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6-3

### 교원 근무시간과 보수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의 교원양성, 자격, 임용 관련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교원의 수업 시간과 보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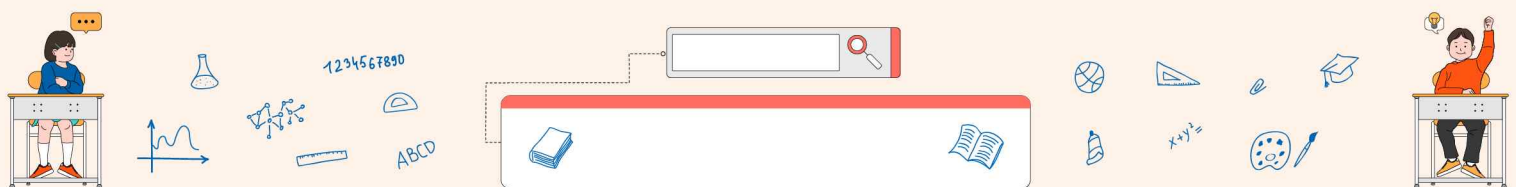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OECD에서는 매년 각국의 주요 교육지표를 수합하여 공표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고 연간 총 수업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업주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초·중고 연간 총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입니다. OECD 평균이 182일 내지 185일이니, 약간 더 많은 수준입니다.

수업주수와 수업일수는 법령 등 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교사의 수업 시간에 대한 자료도 있는데, 이 자료는 별도의 통계조사에 기초해 작성됩니다. 정규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업 시간이 포함되었고, 점심시간, 휴식시간, 수업 준비시간, 생활지도 시간 등은 제외되었으므로 실제 교사로서의 근무시간보다는 더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 1인당 연간 순 수업시간은 202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672시간, 중학교 517시간, 고등학교 540여 시간입니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784시간, 중학교 711시간, 고등학교 684시간입니다. OECD 평균보다 한국 교사의 순 수업시간은 연간 100시간 이상 더 적습니다.

교원의 급여 수준을 국가 간에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무조건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또 경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표는 경력연차에 따른 한국 국공립학교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수준을 OECD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제시된 급여액의 단위는 미국 달러인데 구매력평가지수로 환산한 환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초임 수준을 비교하면 한국 교원의 연간 법정 급여는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적습니다. 하지만 경력 15년차가 되면 한국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가 OECD의 비슷한 연차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액보다 약 7,000달러에서 10,000달러가량 더 높아집니다. 최고호봉을 비교하면 차이가 더 큼니다. 한국 교사의 최고 호봉액, 즉 법정 최고 연간 급여액은 95,000달러가 넘습니다. OECD 평균은 60,000달러 내외입니다. 30,000달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한국과 해외 다른 국가들의 교원 급여 수준 차이는 경력연수에 따라 급여가 크게 상승하도록 설계된 한국 제도의 특수성에서 비롯됩니다. 최고호봉까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한국은 37년, OECD는 평균 26년이므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국 교사의 급여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 법정 급여액에는 봉급, 정근수당, 복리후생비, 교원연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교사들의 수령액은 보통 급여자보다 더 높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보충수업 수당 등을 받으면 교사 수입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원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 보수 수준도 공립학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2년부터 공무원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1975년부터 별도로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원에 대한 급여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었고, 학부모로부터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후원회, 사친회, 기성회 등의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고, '촌지'라는 이름 아래 개별 학부모가 음성적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은 1982년부터 매년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촌지'문제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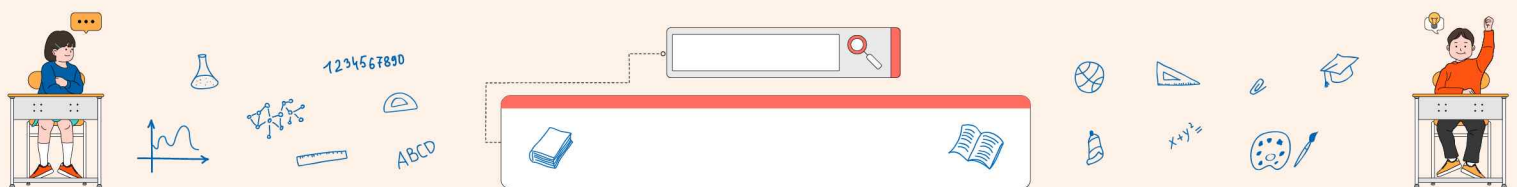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지금까지 수업시간과 법정급여 등 한국 교원의 근무 여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OECD 교육지표로 살펴보면 한국 초중등 교원의 연평균 수업시간은 적은 편입니다. 법정 급여수준은 초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더 높은 편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은 사학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과거 횡행했던 촌지 문제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제와 한국 교육> 여섯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교육에서 교원의 현황, 교원 양성기관의 진화 과정, 교원 노동시장의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교원을 모시고 현장의 말씀을 청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4

교사 인터뷰: 여주고등학교 교사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실제 교육 현장의 교사, 즉 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주신 분은 여주고등학교 사회교사이신 김지용 선생님이십니다. 김지용 선생님 안녕하세요?

(답) 안녕하세요. 여주고등학교 사회교사 김지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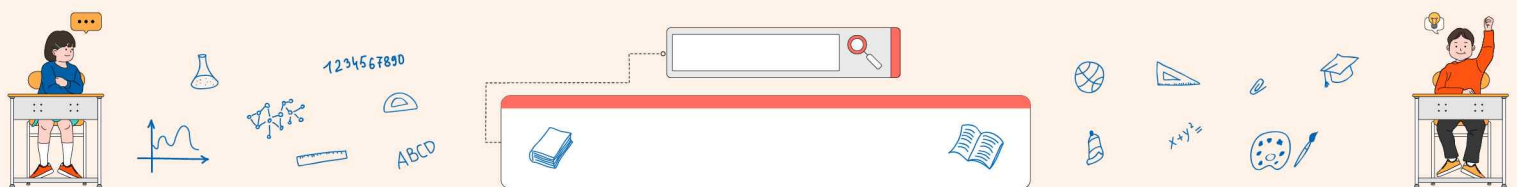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네, 저는 2004년부터 여주고등학교에서 사회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정치와 법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학생생활 안전과 체험학습 등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여주고등학교는 학생이 462명, 학급이 18개입니다. 교사는 40명입니다. 교사들 중에서는 교장 선생님 한 분과 교감 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부장교사 아홉 분 등 여러 직책을 맡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남학생이 245명, 여학생이 217명입니다. 교사 중에는 남자 선생님이 24명, 여자 선생님이 16명입니다. 교직원 중 교사들을 제외하고도 행정실 직원, 급식실 직원, 행정보조 실무사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질) 우선 선생님께서 어떻게 교직의 길로 들어서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 처음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는 교사는 우선순위에 없었습니다. 학창시절에도 교사란 직업이 딱히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 속된 말로 멋있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후에 대학에 와서 교육학 분야의 과목들을 접했고, 나의 지식과 노력으로 학생들이 조금 더 성숙한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점들이 점점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지리학이나 사회과학의 내용들을 직업과 연계해서 계속 접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질) 처음에 교사가 되기 이전에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과 막상 교사가 된 이후 현실을 접했을 때 가장 다르다고 생각하신 점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답) 교사가 되기 이전에는 막연하게 좋은 교사란 자기 과목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동안 느낀 바로는 세대차가 느껴지는 학생들과 하루 종일 대면하고, 수업하고, 상담해야 하니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잘 교육하고, 때로는 훈육하고 때로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대인관계 능력이 필수이고,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직에 불만족하거나 이직을 생각하는 교사들은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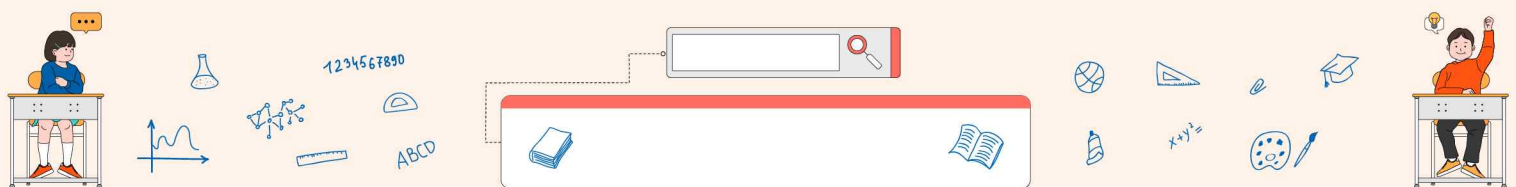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질) 선생님께서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시다가 교직과정을 이수하시고, 또 그 이후에 사범대학에서 지리교육학을 전공하시고 교사가 되셨죠? 교사가 되기 이전에는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하신 경험도 있으신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치신 뒤에 교사 이외에도 선택하실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넓었을텐데, 교사가 되기로 결정하신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답)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직과정이라는 제도를 이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직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고, 교사가 되기 위한 추가 과정으로 사범대학에 편입해서 지리교육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육군에서는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장교로 근무했어요.

누구나 20대에는 다양한 진로 고민과 탐색을 하고, 저도 비슷했어요. 제가 당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여행과 사진이었습니다. 사진가나 여행작가의 진로를 생각해 보기도 했었는데, 교사, 특히 지리교사나 사회교사는 사진이나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 수업을 할 수도 있었고, 관련 경험들을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학생들을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이 저로 인해서 여행이나 다양한 문화 체험의 즐거움과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거나, 졸업한 제자들이 관련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한국의 긴 겨울방학은 다른 일반적인 직장과는 다르게 제 여행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었고, 한국에서 교사라는 직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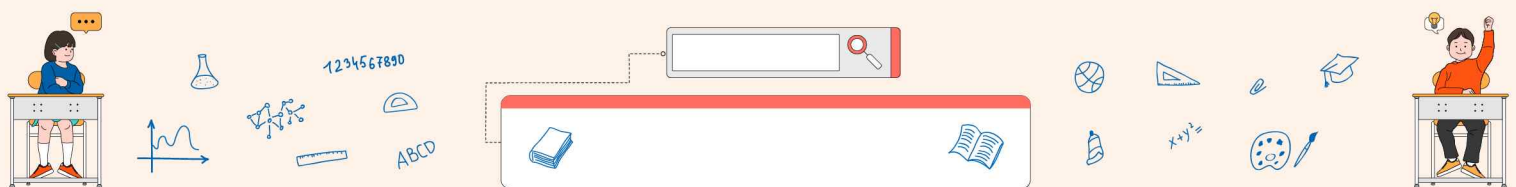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질) 이제 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교사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답) 아직도 한국에서는 사회적 계층상승의 주요 수단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 때에는 더욱 그랬고, 지금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녀교육에 공을 들이고 많은 교육비 지출과 투자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은 생각이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이미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자라왔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에서는 절대적 빈곤층은 사라졌고, 학생들은 계층상승에 대한 욕구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한 학력이나 교육이 아닌 다른 것들로 경제적 계층상승을 이루는 것을 많이 목격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주식투자, 가상화폐, 연예인, 유튜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지향점이 다릅니다. 학부모들은 아직은 전통적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 입시에서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학생들은 조금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원합니다. 이런 괴리의 중간지역에 교사들이 존재합니다. 학생 학부모 각각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는 달성해주면서 균형 잡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 교사로 일하시면서 어렵게 느끼시는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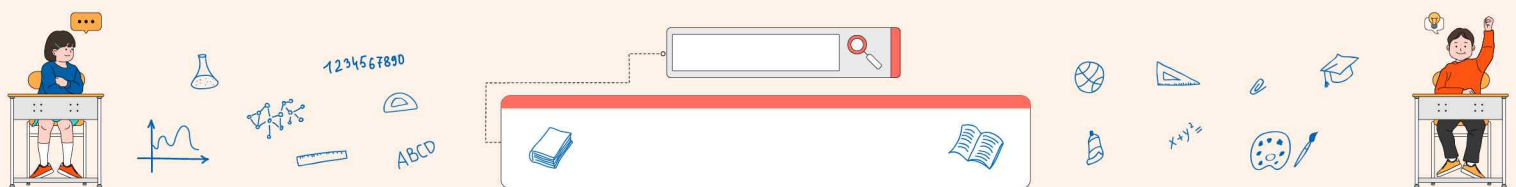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답) 어려운 점은 참 많지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행정의 비대화입니다. 행정의 비대화는 교사로서의 역할에 많은 한계를 가져옵니다. 물론 행정의 비대화가 비단 학교 현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기본 역할은 수업, 학생 상담, 지도입니다. 행정이 비대해지면 기본 역할에 충실하기 힘들어집니다.

물론 24시간 일할 수 있다면 다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요. 수업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상담하기 위해서 행정 서류를 많이 만들고 교육청에 전부 보고해야 한다면 본질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목표와 행정 수단이 뒤바뀌는 목적전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학생 지도의 어려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학생인권보장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학교에서는 학생지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의 인권보장이 확대되는 점은 분명히 필요했고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학생지도 시스템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지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칙을 어기거나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지도와 제재를 하지만, 보통은 교내 봉사를 시킵니다. 교내 봉사와 같은 처벌이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들거나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편입니다.

또 학생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교사가 하지 않은 행동을 거짓으로 신고해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 학생지도에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벌어지는 비슷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 교사들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질) 그동안 거의 20년 동안 교사를 해 오셨는데, 처음 교사가 되셨을 때와 지금 현재의 교육환경을 비교해 본다면 어떠한 차이가 주로 있습니까?

(답) 교육환경 시설의 변화는 의외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학급당 인원이 꽤 줄었어요. 올해는 한 반 학생이 26명 정도입니다. 교사의 인적 구성에도 변화가 조금 있는데, 계약직 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제 선생님의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계약제 교사의 비율 증가는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가 큰 이유입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가 크게 늘어난 점입니다. 증가한 교육 교부금으로 인해 교육청 교육예산에 여유가 생겼어요. 민선 교육감이 등장하며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으로 대표되는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방과후 수업, 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금액도 거의 지원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지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따르고 있습니다.

(질)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MZ 세대라고 하나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요즘 학생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이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기존의 MZ 세대와는 또 다른 세대일 겁니다. 뭐라고 명칭을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달라진 부분이 또 있겠지요. 제가 X 세대였는데, 사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지금 학생들도 X 세대일 겁니다. 기성세대의 관점으로는 파악도, 이해도 잘 안 되는 정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 나름대로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부분은 좀 전에 말한 교육복지 확대의 어두운 면과도 관련이 있는데 지금의 학생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많은 혜택을 보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물론 한국의 복지가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면도 많지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많이 확대되었지요.

지금의 학생들은 출산하면서부터, 영유아 시기에, 초중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1년 전 이 무렵에 제가 담당한 업무 중 하나가 경기도 전체 학생에게 코로나 위로금으로 20만 원씩 현금 지급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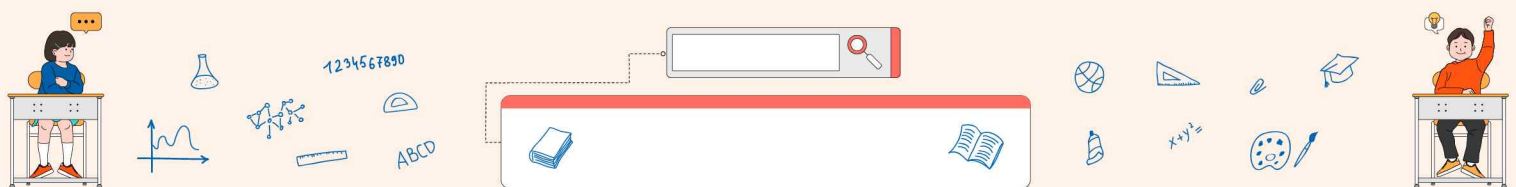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이 확대되어 무상급식 일수가 줄어들자 유기농 농산물 꾸러미를 가정마다 배달해 주었고, 농협에서 쓸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도 지급했습니다.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직접 회원가입까지 해주면서 지급해 주었어요.

매스컴에서는 청년수당, 청년복지 등의 용어가 매일 등장합니다. 복지의 확대는 당연히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당연하게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어찌다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학생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본인이 곤란을 겪는 많은 부분을 국가와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점이 지금 학생 세대의 부정적 특징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특징도 많이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특징 내부에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선하고, 창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정과 끈기, 정의로움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K-팝이나 K-드라마와 같은 k-컬처의 핵심은 이러한 창의성과 독창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가끔은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뭐 해먹고 살래” 이러면서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지금 학생세대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창의성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질) 교사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예전에 선생님들은 어려운 존재, 엄하고 두려운 존재로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종종 보면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가 많이 가까워지고 친숙해진 느낌입니다. SNS 메신저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제 교사는 더이상 어렵거나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관계가 많이 가까워지고 친해졌어요. 물론 학생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는 교사마다 굉장히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학생들과 꽤 세대 차이가 나긴 하지만, 학생의 눈높이에서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의 소통 수단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의 비중은 상당합니다. 메신저가 없으면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가끔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간식을 사먹기도 합니다.

(질)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학부모와 연락하고 소통할 기회가 많나요?

(답) 일단 담임교사들은 일반 교사에 비해 학부모와의 소통 기회가 좀 더 많습니다. 주로 입시 상담이 대부분이지만, 때론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교사와 일대일의 소통을 하는 횟수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학부모도 입시나 학교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외부에서 듣는 경우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부정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예전에 비하면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도 더이상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말하기 힘들어진 상황과 비슷합니다.



(질) 이번에는 학교에 대해서 조금 여쭙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계시는 학교는 사립학교인데, 교사의 입장에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 한국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는데, 역시 가장 큰 차이는 수 년 마다 학교를 옮겨 다니는지, 아니면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지가 가장 큰 차이겠지요.

이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사립학교의 기준에서 장점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지역과 그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 또는 학교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과 애정이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너무나 익숙한 교육환경 때문에 참신한 변화라든지, 새로운 영역의 도전은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동료 교사들도 오랜 기간 같이 근무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특징도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선생님께서는 학창 시절을 서울에서 보내셨지요? 지금 근무하시는 곳은 서울에서 약간 거리가 있는 지역인데, 서울 또는 수도권 지역과 이곳 여주의 교육환경은 비슷한가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제가 근무하는 여주는 처음 왔을 때는 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의 학생들은 대학입시에 서도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는 일종의 혜택을 보면서 진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주가 시로 승격하면서 그런 혜택은 사라졌습니다.

여주는 수도권의 많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여주고에 재학하는 학생의 90%는 면이나 읍 지역이 아닌, 변화하고 도시 중심지 기능의 혜택을 보고 있는 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주 학생들 대부분은 서울, 인천과 같은 대도시 학생들과 일상, 교육환경, 스타일, 가치관 등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점은 여주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도시, 농촌, 어촌과 같은 전통적인 지역구분도 의미가 없어지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에게는 더이상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강원도에 살면서도 서울 유명 학원 강사의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역별 학력 격차는 여전히 큰 문제이며, 이 지역별 학력 격차는 도시와 농촌의 학력 격차가 아니라 서울의 강남과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의 차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 한국은 최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혹시 현장에서 그러한 점들을 체감하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학령인구가 더 감소할 때 교육 현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답) 고등학교에 근무 중이라 아직 크게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최근 여주의 1년간 출생인구가 500명이 채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출산율의 여파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할 것이며, 저도 5년 내지 10년 내로 크게 체감할 것 같습니다. 여주에는 9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해 일부 학교는 폐교될 수도 있습니다.

교사인 저에게는 생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초, 중, 고, 대학 모두 같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학급당 25명 내지 26명 정도가 정원인데 학급당 인원을 더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문제는 20명 이하가 되었을 때, 교육부의 정책 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교육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저출산의 여파는 교육 현장과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인해 과목별 수업에 있어서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에도 변화 또는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인공지능의 시대에 맞춰 학교 교육은 나름의 존재이유와 정체성을 찾아야할 겁니다. 교사만이 할 수 있는, 학교에 등교해야만 할 수 있는 교육컨텐츠 개발도 필요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의 교실 환경에 맞춘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수법 개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답)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인적자원의 지속적 계발과 높은 교육열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았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은 교육을 계층상승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꼽고 있으며, 학교 교육의 성공적 완성은 명문대 입학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부분이 한국 학교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한국의 학교 교육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창의적 인재, 정의로운 민주시민,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글로벌 인재의 양성이 이젠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과거에 비해 많은 교육 재정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교육의 변화는 이미 한국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대한민국의 탄생을 가져올 것입니다.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도 당부드립니다. 저도 최근에는 수업시간에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으며,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고도화될 세계화, 다문화 시대에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참여해 주시고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하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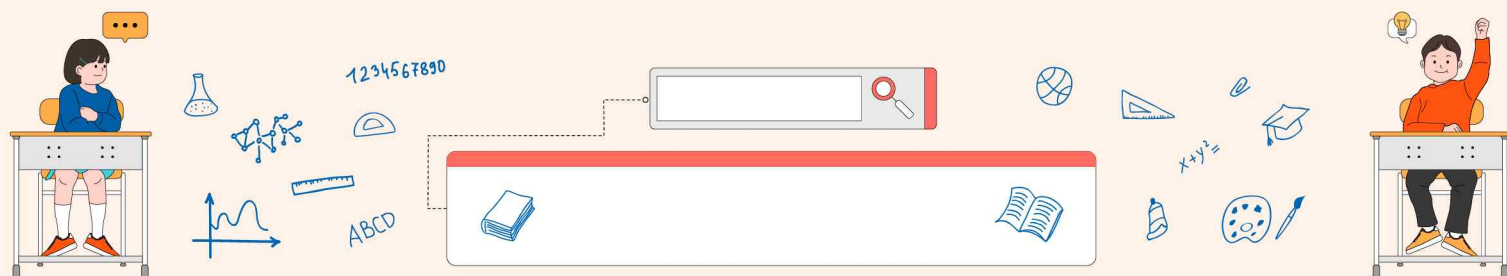
지금까지 한국의 교원들에 대해 현직 교사를 모시고 직접 말씀을 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교육재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6

## Teacher/Educator

6-1

## Korea's teachers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Korean Economy and School Education.” My name is Go Sun. This section will explore the topic of “The School Teacher”. When it comes to academic education, school teachers are the guiding force behind the education of their students. Their labor costs take major proportion when it comes to the school finances.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teachers i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the evolution of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changes in the labor market for teachers, and the feminization of teaching. In the last part of the session, we will invite actual teachers to share their thoughts on the current situation. First, here is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teachers in Korea.

The trend in the number of teachers in Korea has typically followed an expansion trend of school education. More teachers were needed to accommodate more students in the education system. The number of teachers in general schools esta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steadily increased, with the 1920s and the late 1930s being periods of particularly rapid teacher growth, corresponding with the rapid expansion of elementary education.

General higher education teachers previously working in secondary education in 1910s to 20s suddenly increased and gradually grew in numbers. It enjoyed a sustainable growth when the schools were established during the early Japanese colonial era. The women's grade high schools have maintained a steady growth of numbers since 1920s.





The “students/per teacher” is good indicator to determine the quality of education a school can provide. And of course it also indicates the “student growth to teacher ratio”. In the case of education in public schools esta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within grade school between the early 1920s and mid-1930s greatly increased. As the number of students increased drastically, teacher employment slowed, increasing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Later, the overall number of students and teachers would decrease, and the academic standard set a step higher has been maintained with no significant changes. This resulted in general schools esta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going from less than 30 students per teacher to 50 students per teacher in the 1920s, and the student number goes up to 70 at the later periods of the general schools esta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Comparing grade school and primary school students per teacher, the primary school has maintained a steady number of around 30 students. The school's establishment and teacher recruitment were steadily carried out following the number of Japanese students. As for secondary education,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between public secondary and high school showed similar numbe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For the people of the Joseon Dynasty, middle school education was extremely restrictive. Yet, in terms of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comparing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it doesn't seem to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Japanese and Korean middle school education.

As for the general women's high schools that were secondary education institutions for Korean women,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was much lower than in the other women's high schools. This shows that Korean women's educational opportunities are more limited than Japanese women's. The 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e's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was less than 25 until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After Korea regained its independence from Japan, the number of grade school, secondary school, and high school teachers in Korea steadily increased. In 1954, the numbers of the grade teachers were 40,869, 9,147 for secondary, and 6,266 for high school teachers.

By 1990, the number of teachers increased to 136,800 for elementary, 89,719 for secondary, and 92,683 for high school students. Despite the decrease in school-appropriate students in the 1990s, the increasing number of teachers continued till 2000, even though the trend slowed down. The student number may have decreased, the small size schools were neglected, and the construction and peration of new schools continued due to the development of new cities and other factors.

In the case of preschools, as preschool education expanded around 1980, the number of teachers started to grow. The number of preschool teachers grows till this day.

As you can see from the graph, it shows the trend of the number of students/per teacher from the colonial era to the present. For elementary educ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per teacher during the colonial period, but a steady decline since libe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It is noteworthy that even though the school-age population continued to increase until around 1980, the number of students/per teacher decreased, indicating that the government's investment in education, particularly in teacher recruitment,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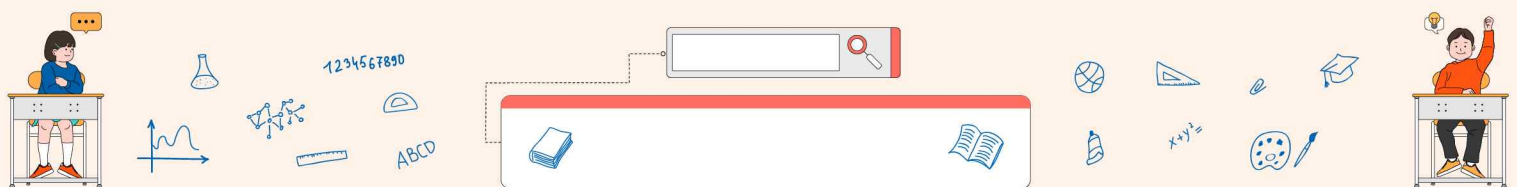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For secondary and high schools,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has increased since Korea reclaimed its independence. It was due to educational opportunities opening up for people in Korea post Japanese colonial era. During the 1960s and 1970s, the student/teacher ratio didn't increase as much despite expanding secondary and high school education. Furthermore, it began to decline after reaching its peak in 1980. Number of teachers started to outpace the number of students.



So far, we've summarized the process of quantitative expans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in Korea. As school education expanded, the number of teachers increased rapidly. In the case of elementary educa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eachers fell short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and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in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post Korean independence, there was a trend of decreasing in numbers of students per elementary school teacher. This was because active recruitment of teachers took place amidst the expansion of school education. In the case of secondary and high schools, teacher recruitment also increased rapidly during the expansion process, and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did not increase significantly until it began to decrease from 1980.

Despite the recent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teachers continues, and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continues to decrease. In the next section, we will look at the training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Korea. Thank you.



## 6-2 Training teachers

I would like to welcome you all for coming back. Last lecture, we talked about the qualitative fluency of Korean elementary teachers and above. This time, we will learn about the teaching standards for Korean teachers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to present.

1910, after Korea becomes a colony for Japan, the colonial government 's initial policy would be to assimilate Japanese teachers who were institutionalized by their government to be hired for education. But it was difficult to meet the demands of the Japanese educators for all the general schools in Korea. Later on, the policy would change to accepting Korean teachers as well.

At first, teacher training was given by adding one-year general course or teacher training courses to the general high schools and women's general high schools. Later, three-year temporary teacher training schools were also established and operated. Since 1920, teacher training workshops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In 1922, the Korean Education Law was revised and, public and private general schools were established. The general schools were divided into two sectors: in one sect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re trained, while the second sector trained teachers for secondary schools. General schools were a secondary course of study after graduating from secondary school and those schools were operated for 5 to 6 years. After graduating from general high school or girls' general high school, one could become a teacher by receiving one year of education at a general school teacher training course.



In 1938, the 3rd Korean education policy's first and second branches would be abolished, and one system would be implemented to follow. The Colonial General School and its education curriculum would be assimilated into the elementary school, and this would lead to the following results:

As most teachers of general high school and general women's high school were Japanese with qualifications and education from Japan. They were usually people who were from general high or foreign language schools. This, of course, would lead to a shortage of teachers and situations where the high schools would give out scholarships that would make students fill in the shortage of teachers by teaching in their high school after graduation as a mandatory requirement. There were also cases of graduates from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the Department of Law, and Suwon Agricultural High School who were qualified to become teachers despite having no exam evaluation.

The private school teachers were in a similar case as the public school teachers. The private secondary schools had to employ private vocational school students as their teachers.

Unlike in Japan, there was no separate licensing system for the Japanese colonial general school teachers. There were three types of elementary and general school teacher exams, and each successful candidate in each exam was considered equivalent to a holder of a license for Japanese elementary school principal and regular teacher, Shim Sang Elementary School principal and regular teacher, or Shim Sang Elementary School assistant teacher. Private school teachers were required to pass the private school teacher exam held at least once a year by the provi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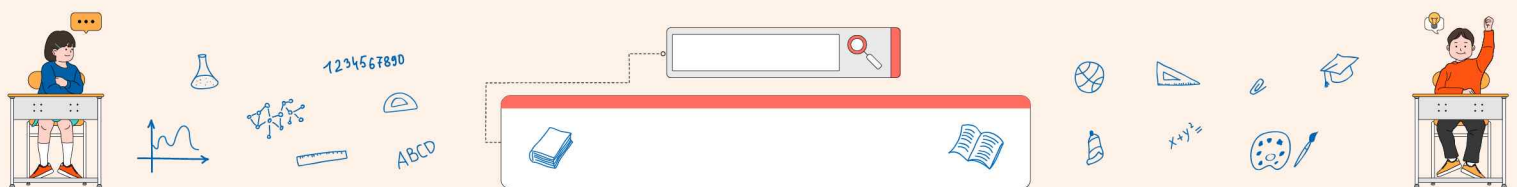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Most secondary school teachers were holders of licence from Japanese high schools and foreign language schools. As mentioned before, while school establishments grew, there were situations where universities and vocational schools would hire secondary education teachers without the license to practice teaching.

At one point, th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did introduce a policy that would let one obtain a secondary education teaching license, but it was prioritized for Japanese colonizers. This was an another method of becoming a secondary school teacher.

After Korea reclaimed its independence, many Japanese teachers returned to Japan. This caused the experimental schools to have little to no teachers for their school. The U.S. military implemented a temporary joint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program to respond to and solve this expanding issue.

Initially, short-term teacher training programs were made so elementary schools could reopen. After courses and facilities were established for public schools, temporary teacher training centers and more were established and functioning quickl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started to reach towards secondary education. And the general school training institute for elementary schools is expanded.

Secondary teaching centers, division and training classes, a temporary secondary teaching center, a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center, and more diverse short-term training program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for the teachers. These short-term solutions are operated until the late 1950s.



At one point, a new college is established as a public secondary school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In 1950, a policy system that requires teachers to attend general college for 2 years for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4 years for high school teachers is established. If students graduate from a vocational school, they can become secondary school teachers despite having no experience in teaching. Starting in 1950, by introducing a teacher training course at a public college, one could become a secondary school teacher without attending vocational schools after completing the general college teacher training course.

In 1960, general education included in high school courses was reorganized for a beginner college course that required two years of teacher training. In 1962, 10 university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and 16 were established in 1975.

The short-term teacher training course was extended because elementary teacher recruitment remained competitive. General schools implemented the continuous education system and people with beginner college and higher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become a teacher having teaching training for 5 to 8 weeks from 1964 to 1967. From 1967 onward, a temporary elementary teacher training school in an 18-week university course was added to public schools for high school and university graduates who wished to become elementary school teachers.

More institutions are now available to train secondary school teachers due to the high demand for them, including vocational education, general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Short-term training programs such as education training institutes and temporary secondary school teacher training programs are also available.



By the 1970s, concerns about a surplu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began to arise. As a result, five education universities had to close, and teacher training institutes that were operated as part of these universities also disappeared. In addition, temporary elementary school teacher training centers that had been producing substitute teachers since the 1960s were also shut down.

On the other hand, a new department of elementary education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at th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This program aimed to train proper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also provided appropriate education for current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lacked basic academic skills at the level of a community college.

Meanwhile, the training program for secondary school teachers continues the approach from the 1960s, as demand for teachers still rises. A system is implemented where graduates of certain vocational majors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can become unlicensed teachers without completing a formal teacher education program.

In 1981, the previously 2-year education colleges are gradually transitioned into 4-year universities. The nominal salary system and temporary elementary teacher training programs are completely abolished.

Starting from the 1980s, concerns about an oversupply of teachers also arose in the case of secondary education. As a result, the system of designating universities from the unemployment sector, which emerged in the 1970s, was abolished. The number of teacher education program graduates from general universities was also limited to within 30% of the total enrollment, and academic standards were raised.





National teacher colleges reduced their capacity and smaller private colleges were converted to regular universities. In 1985, the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as established to train both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Teacher qualifications changed along with teacher training systems. After liberation, the colonial system continued during the US military rule. Teacher license and qualification exams were implemented for teacher appointments. In 1948, the teacher qualification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and elementary, secondary, and high school teacher certifications were granted.

In 1953, the Education Officials Act was established, and the Education Officials Qualification Exam was also established. The validity period of the teaching certificate was set to 10 years, and it was required to receive certain training and renew it afterward. Teacher qualifications were divided into two methods: non-exam testing acquired through education in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and qualification granted through examination testing, which was further divided into two types: general examination and announced examination.

In 1963, the Education Civil Servant Act was revised, creating the current system for teacher qualifications. The qualifications include 1st and 2nd grade certified teachers, probationary teachers, correctional facility teachers, librarian teachers, practical skills teachers, and qualified teachers. Education-related professions such as education administrator, scholarship officer, scholarship administrator, educational researcher, and educational research assistant were also defined, but these professions were operated without certification.





Meanwhile, the qualification certification for secondary and high school teachers, which had been separate, was integrated into the qualification certification for middle school teachers. The expiration date for the teacher certification, which had been set to 10 years, was extended to the retirement age. In 1964, the Teaching Qualification Test Law was established. The teacher qualification was limited to those over 20 years old, and subject designations were introduced on the teacher certification. In addition, re-education courses were established for acquiring advanced qualifications.

Starting from 1965, graduates of education graduate schools also began to receive secondary school teaching certifications. In 1982, the teacher qualification system was revised to strengthen the non-examination qualification screening process. From 1988 onwards, the responsibility for teacher qualification tests was delegated and entrusted to the presidents of each university.

At present, upon graduation from education universities, teacher training colleges,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s, individuals obtain a level 2 teaching certification corresponding to their respective qualifications. After a certain period of teaching experience has passed, individuals can receive training and obtain a level 1 teaching certification.

How were teachers actually appointed? As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expanded widely, there was a severe shortage of teachers. The expansion of school education was led by public schools, and the government implemented policies to actively secure excellent teachers for public schools.



In 1953, a policy was initiated to prioritize the employment of graduates of national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and holders of advanced qualifications in national public schools. In 1963, a policy was established to prioritize the employment of graduates and alumni of national public teacher training colleges and other institutions, based on a predetermined ratio. This policy of prioritizing the employment of graduates of national public teacher training colleges and universities was declared unconstitutional in 1990. Subsequently, a new policy was adopted to select candidates through an open competition examination, in which graduates of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compete together.

Although national and public schools gave priority to graduates of national and public teacher training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re still weren't enough teachers to meet the overall demand. With rapid economic growth, many graduates of these institutions opted to work for private companies instead of pursuing a career in education. To address this issue, a mandatory service system was introduced with scholarship awards as a condition.

From 1969 to 1992, teacher education colleges introduced the RNTC system, which allowed male students to work as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substitute for military service after graduation. In addition to graduates from public teacher training colleges, graduates from private teacher training colleges and graduates of general university teacher training programs were also hired by public schools. However, since 1973, a ranking exam for new teacher appointments has been conducted and used for employment.

Although the rank examination was originally intended to be used for the employment of teachers in private schools, private schools had a low rate of new teacher employment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and more. Therefore, since 1977, it has only been conducted for new appointments to public schools.



Starting in 1991, a competitive exam was introduced to select candidates for education civil service positions following a ruling that the practice of prioritizing graduates of national and public teachers' colleges was unconstitutional. The exam is conducted by provincial and metropolitan education superintendents.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ompetitive exam, graduates of local teachers'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same province wer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with additional points.

However, the regional preference point system for graduates of junior high school teacher training colleges was ruled unconstitutional in 2004. Therefore, it was postponed until 2010 when the students enrolled in the colleges graduated, and the regional preference point system was abolished from 2011.

Private schools generally employ teachers through their own selection process. However, to allow private schools to hire excellent teachers, the employment of graduates from national and public teacher training colleges in private schools has been permitted since 1973. In addition, since 1982, a special employment system has been implemented to hire experienced teachers from privat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s public school teachers or other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One of the reasons for introducing this system initially was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n private schools.

When a teacher's salary is determined by their level of seniority, the financial burden increases as their experience grows. Therefore, by replacing experienced teachers with new ones through this system, the personnel cost can be reduced for private schools. This system was maintained until controversy arose in the 2010s, and the requirements were changed in a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system.



We've summarized how the system for teacher training, qualification, and employment has been developed in Korea thus far. Currently,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in Korea are being trained through education colleges, teacher training colleges, and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at general universities. After completing their training, they can obtain a regular level 2 teaching license through a non-exam certification system if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Later, after meeting certain conditions such as work experience, they can obtain a 1st grade teaching qualification. Teachers in public schools are currently hired through a competitive exam to select education civil service candidates. Private schools select and hire their own teachers. In the past, when school education was expanding, the problem of teacher shortages was serious. Therefore, there were various temporary teacher training systems, and it was common to train and hire teachers 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generalization of school education, concerns about an excess supply of teachers have arisen. To improve th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and teachers, the qualification standards have been strengthened and the competition in the hiring process has become more intense. In the next session, we will discuss the working hours and compensation of teachers. Thank you.



### 6-3 Working hours and reform

Hello, everyone! Last time we talked about how South Korea's teacher training, certification, and how hiring systems were established. Now, let's talk about Korean teachers' teaching hours and compensation.

According to OECD, it annually collects and publishes key education indicators for each country. According to this data, the total annual class hour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Korea is 38 weeks, which is similar to the OECD average. The number of class hours is determined by law. The total number of legal school days per year in Korea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s 190 days, slightly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of 182 to 185 days.

The number of class hours and school days are determined by laws and regulations. Separate data on teachers' class time is also available and is based on separate statistical surveys. It includes regular classes, special activities, and discretionary classes, but excludes lunchtime, break time, lesson preparation time, and life guidance time, so it can be considered smaller than the actual working hours of teachers.

The net annual teaching hours per teacher in Korea as of 2021 are approximately 672 hours for elementary school, 517 hours for secondary school, and 540 hours for high school. The OECD averages are 784 hours for elementary school, 711 hours for secondary school, and 684 hours for high school. Korean teachers' net teaching hours are more than 100 hours less than the OECD average.



Comparing the salary levels of teachers across countries is not easy. Variables such as working conditions and differences in career levels make it difficult to compare. The table on the screen shows the annual statutory salary levels of Korean public school teachers based on their years of experience,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The salary figures presented are in US dollars and are converted using purchasing power parity.

When comparing the starting salary, the annual statutory salary of Korean teachers is similar or slightly lower than the OECD average. However, when it comes to teachers with 15 years of experience, the annual statutory salary of Korean teachers is about \$7,000 to \$10,000 higher than that of teachers with similar experience in the OECD. The difference is even greater when comparing the highest pay scale. The maximum annual statutory salary for Korean teachers is over \$95,000, while the OECD average is around \$60,000, which is a difference of about \$30,000.

The difference in teacher salary level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is due to the unique design of the Korean system where salaries increase significantly with years of experience. The time it takes to reach the highest salary level, commonly known as the "maximum salary level," is generally 37 years in Korea and 26 years on average in OECD countries, which also contributes to the difference.

However, overall, it can be said that the salary level of Korean teachers is higher than in other countries. Annual legal salaries include salary, regular allowances, fringe benefits, and teacher research expenses. Overtime pay, which is commonly paid, is not included, so the actual amount received by teachers is usually higher than that of ordinary salaried workers. In high schools, teachers can earn more through additional teaching allowances.



The personnel expenses of private secondary and high school teachers in Korea are practically supported at the same level as government-funded public school teachers. So, the compensation level for private school teachers can also be considered similar to that of public school teachers

Public school teachers in Korea have the status of government employees, so they have been entitled to the benefits of the civil service pension system since 1962. Private school teachers have been entitled to the benefits of the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since it was established separately in 1975.

In the past, the salary level for teachers weren't up to standard, and it was common for them to receive separate financial support from parents. Financial support from parents for teachers was often provided through organizations such as support groups, alumni associations, and community groups, and individual parents also provided support under the name of 'chonji', which means direct financial contribution.

There were efforts to improve the image of the teachers by having the 'teacher's day' movement on 15th of May. With this, "chon-ji" disappeared with the passing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2016.

So far, we have summarized the working conditions of Korean teachers, including class hours and statutory salaries. According to the OECD Education Indicators, the annual average class hours of Korea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re relatively low. The statutory salary level is generally high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except for novice teachers.





Public school teachers in Korea receive benefits from the Civil Service Pension Fund, and private school teachers benefit from the Private School Pension Fund. In addition, every year May 15th is designated as Teacher's Day to commemorate teachers. The issue of "chonji" that was prevalent in the past has disappeare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at concludes the sixth section on Korean Economy and Korean Education. This lecture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of teachers in Korea, the evolution of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and changes in the teacher labor market. In the next session, we will have actual teachers to listen to their perspectives. Thank you.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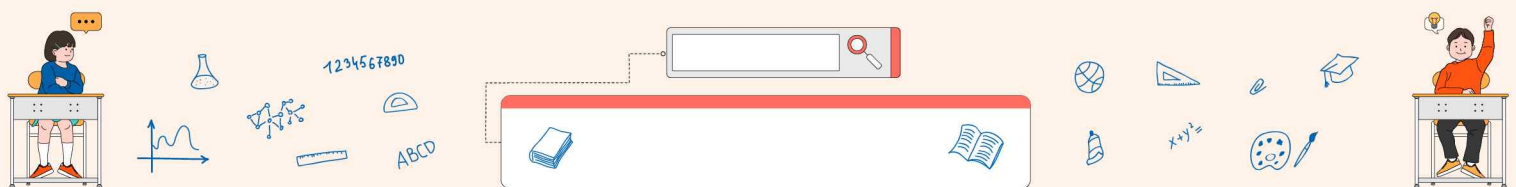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Teacher Interview: Yae-Ju High School Teacher

Hello, everyone! This section, we've invited a someone who is going through the experience of being a modern day teacher. We want to welcome Mrs. Kim-Ji-Yung, an S&E teacher at Yae-Ju High School. Hello Mrs Kim. Hello. I'm Kim-Ji-Yung of Yae-Ju Highschool. Would you kindly give us an introduction?

A) Yes, I've been teaching since 2004 at Yae-Ju High School as an S&E teacher. My subjects are society and culture, politics and laws, and more. I'm also in charge of organizing a safe school environment and field studies for the students.

Yae-Ju high school has 462 students, 18 classes and 40 teaching staffs. Within the staffs, there is 1 principle, 1 assistant principle, 9 head teachers and more staffs handling more than 1 subject. Our school has 245 male and 217 female students. We have 24 male and 16 female students. Excluding the teachers within the staffs, there are administration, food canteen and administrative assistant staffs. What led you to walk the path of teaching?

(A) At first, I didn't have any thoughts about becoming a teacher. I didn't see teaching as a good occupation during my school days, and it needed a better reputation around my friend circles. Later on, I pursued a degree in teaching and I started to take an interest in the fact that my knowledge and effort could help my students to grow into a someone more mature. I also found it fascinating that I can apply and integrate my geography and social sciences knowledge in my teaching.



(Q) What are some thoughts that you had before becoming a teacher and changed right after you've become one?

(A) I believed that being a good teacher meant that you must be an expert in your particular field. However, after experiencing the generational gap, taking care of the children, and giving lessons and consultations, I've realized that a teacher needs good communication skills.

Communication skill is necessary when it comes to getting along with and disciplining students, so I see it as a very important aspect. I believe that teachers who are unsatisfied or thinking of quitting are having such a hard time because they lack the communication skill necessary.



(Q) From what I know, you majored in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before completing a teaching certification, and later went on to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at a teacher's college and became a teacher. And before that, you also had experience serving as an officer in the military.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and completing your military service, you could have chosen from a wide range of occupations other than teaching. What were the reasons you decided to become a teacher?

(A) Initially, When I was majoring in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I completed the teaching course program to obtain a teaching certificate. As all that was happening, I began to take teaching more seriously. I took additional steps towards becoming a teacher, I transferred to a teacher's college and majored in Geography Education. In the army, I worked as an officer responsible in public relations.

During their 20s, everyone goes through various career considerations and explorations, and I was no exception. The field that I was most interested in at the time was travel and photography. I even considered a career as a photographer or a travel writer. However, I realized that as a teacher, especially as a geography or social studies teacher, I could incorporate my interests in photography and travel into my actual lessons. Additionally, by sharing my experiences with my students, I could help them grow into individuals with a broader perspective. This aspect of teaching was very attractive to me.

When students tell me that they have learned about the joy and importance of traveling and experiencing different cultures through me, or when I see my former students pursuing careers in related fields, I feel a great sense of fulfillment. Additionally, Korea's long winter vacation allowed me to satisfy my own travel desires,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typical professions. Furthermore, I could not ignore the practical reason that being a teacher in Korea is a relatively stable job.



(Q) Now, let's talk about what happens behind the scenes.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onsider working as a Korean teacher?

(A) Till this day, I believed that education is a major means of climbing the social ladder in Korea. This was especially true when I was young, and student's parents believe that as well now. Therefore, these parents would be quick to invest lots of money and effort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It's possible that the thoughts of Korean secondary and high school students may be a little different now. They were born when Korea was more prosperous and peaceful than ever before, and they have grown up enjoying many things. In the meantime, absolute poverty has disappeared in Korea, and students do not have as strong a desire for upward mobility through education as before. They have also witnessed many cases of achieving economic upward mobility through means other than education or academic achievement, such as real estate investment, stock trading, cryptocurrency, celebrity status, and becoming a YouTuber.

Therefore, parents and students have different expectations regarding school education. Parents still traditionally hope that their children will succeed in college entrance exams through school education, while students want a somewhat different form of education. In this middle ground of discord, teachers exist. I believe it is important for teachers to play a balancing role as mediators, achieving some of what each student and parent desires.



(Q) What are some things that you find difficult as a teac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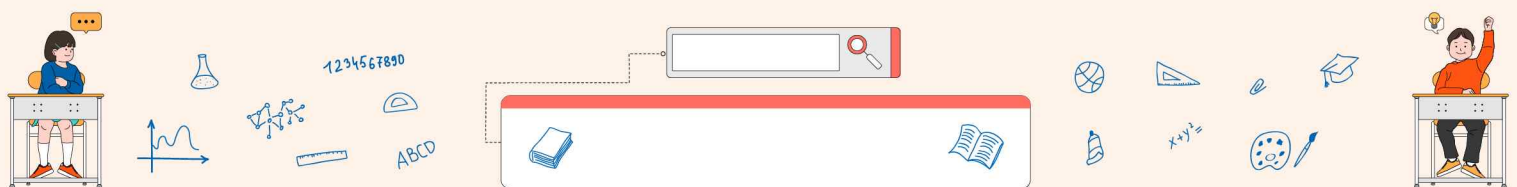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A) There are many difficulties, but I will mention two. First, is the school's administration getting too big. If the regulations get too big, this limits our role as teachers. Of course, I do not think that this is the only a problem of schools. The primary roles of a teacher are teaching student counseling and guidance. When administration becomes too restrictive, it make things harder to do our jobs.

Of course, it would be possible to do everything if we could work 24 hours a day, but realistically, that's impossible. If we had to create much administrative paperwork, evaluate and counsel students, and report all that to the authority, there would be no time to do our job. I think these nonsensical, backwards methods are a big issue.

Another difficulty is student counseling. As times change and student rights are expanded in Korea,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student counseling in schools.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and expanding student rights is undoubtedly necessary and a great achievement. However, because there is still a lack of a new student counseling system that is appropriate for the changing times, there are difficulties in student counseling.

If a student violates school rules or commits a major offense these days, various methods of student guidance and sanctions are used, but typically, the punishment involves doing some school service. Since punishments like school service are not particularly difficult or burdensome for students, they are often ineffective.

Additionally, there are cases where a student who is dissatisfied with the student guidance system falsely reports the teacher for actions they did not take, and this make the teachers reluctant to get involved. When similar cases occur in other schools and are reported in the media, many teachers empathize with the situation.



(Q) You've been teaching for 20 years. What are some big differences in educational environment between when you first started teaching and now?

(A) The changes in educational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don't seem that big but the number of students has definitely decreased. This year, there are about 26 students per class. There has been a slight change in the number of teachers, with an increase in "contract teachers" side. The increase in them is largely due to the continuous decrease in the student population.

The biggest change is the significant increase in educational funding. This allows for more flexibility in the education budgets. With the emergence of elected education superintendents,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student welfare, shown through the free meals and school uniforms. The funding for necessary student items, after-school programs, and educational experiences are also being supported, and that is a big change. Of course, some unintended consequences come with an increase in welfare.





(Q) Let's talk about students now. The MZ generation, right? In your opinion, what are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is generation?

(A) The students entering secondary and high schools now will be from a different generation than the MZ generation. I'm not sure what to call them, but there will certainly be differenc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lder generation, there are many aspects tha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and comprehend, which makes it hard to define.

I will try to provide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s in my own way. In terms of negative evaluations, there are aspects that are related to the dark side of expanding educational welfare, where the current students have grown up receiving many benefits that the older generation did not have. Of course, there are still many areas where Korean welfare is lacking compared to other Western countries, but it has certainly expanded a lo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lder generation.

The current students have received various benefits from childbirth, infancy, and throughout thei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years. For example, just a year ago, I was in charge of distributing cash relief payments of KRW 200,000 to all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hen remote learning was expanded due to COVID-19 and the number of days for free school meals was reduced, organic produce packages were delivered to each household, and cash points that could be used at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were also distributed. For students who were too lazy to apply, homeroom teachers even signed them up and made sure they received the benefits.



In the media, terms such as "youth allowance" and "youth welfare" are frequently mentioned. The expansion of welfare is certainly not a problem. The problem is that students have become overly dependent on welfare because they have grown up receiving it so naturally. If there is any aspect that is not supported, they cannot understand why and blame it on the country and the system. I think this is a negative characteristic of the current student gener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many positive characteristics. Within the characteristics that the older generation cannot understand, there are many dynamic, kind, and creative aspects. They still possess the passion, perseverance, and sense of justice that Koreans traditionally have and are very creative. The core of K-culture, such as K-pop and K-dramas, which are currently receiving attention worldwide, are emerging from this creativity and originality.

Although there may be some concer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lder generation, such as "What will they do for a living later?" I am not worried because I believe that the future growth engine of Korea will come from the creativity and originality that only the current student generation possesses.



(Q) What is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like? In the past, teachers were often seen as difficult, strict, and intimidating figures, but these days, it seems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has become much closer and more familiar. There are even cases where the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SNS messengers. What is the reality like?

(A) That's right. Nowadays, teachers are no longer seen as difficult or scary people. Compared to the past, the overall relationship has become much closer and more friendly. Of course, the relationship that each teacher forms with their students can vary greatly.

I try to form relationships with my students at their level, even though there is quite an age gap between us. Messaging apps like KakaoTalk are a significant means of communication with my students. Without it, it would be impossible to have conversations. Sometimes, I even buy snacks and eat them with students who attend my classes or clubs.



(Q)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like? Do they have many opportunities to communicate and interact?

(A) First of all, homeroom teachers have more opportunities to communicate with parents compared to other teachers. The communication is mainly focused on college admissions counseling, but sometimes they also communicate when a student causes a problem. However, overall, the frequency of one-on-one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past.

Parents also receive various advice on college admissions and school life from external sources. If we analyze this somewhat negatively, it may be due to the fact that the expectations of each other have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past.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is also becoming less like that of a master and disciple, which is similar to the situation with parents and teachers.



(A) I would like to ask about schools this time. The school where you work is a private school, so could you tell me as a teacher what the difference is between private and public schools?

(A) In Korea,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chools from the perspective of students and parents.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from the perspective of teachers, and the biggest difference is whether they move to different schools every few years or stay at the same school.

From the perspective of a teacher at the private school where I work, the advantage of staying at the same school is that they have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and affection for the local area and the school. I think this interest and affe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educational activities at the school.

However, the disadvantage is that because the education environment is too familiar, there may be a lack of innovative changes or challenges in new areas. Also, many of my colleagues have been working together for a long time, and I think this is both an advantage and a disadvantage.



(Q) Did you spend your school days in Seoul? The place where you currently work is a bit far from Seoul, so is the education environment in Yeosu similar to that of Seoul or the metropolitan area? What are some differences in your opinion?

(A) When I first came to Yeosu, it was a military area. Therefore, Yeosu students had a kind of benefit called "rural special admission" even in university entrance exams. Now that Yeosu has been promoted to a city, such benefits have disappeared.

Yeosu is a complex city and countryside just like many other c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90% of students attending Yeosu-go reside in urban areas, enjoying the benefits of being in the city center rather than rural areas or towns. Most Yeosu students have the same daily lives, educational environments, styles, values, etc., compared to students from major cities such as Seoul and Incheon. I think this applies not only to Yeosu, but to all regions in Korea.

Traditional regional distinctions such as urba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e becoming increasingly meaningless, especially for students. In an age where students can access lectures by famous Seoul academy teachers anytime, anywhere, regardless of where they live in Gangwon-do, for example, However, regional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 still remain a major issue, and I think this difference is not between cities and rural areas, but between Seoul's Gangnam and all other regions except Gangnam.



(Q) Recently, South Korea's birth rate has been declining, leading to a rapid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Have you noticed these trends in the education field, and how do you anticipate the education system changing as the school-age population continues to decline?

(A) As a high school teacher, I have not yet notice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ducation field. However, in the past year, the number of births in Yeosu (my city) was less than 500, indicating a very low birth rate. The effects of this low birth rate will likely be felt starting from elementary school, and I anticipate that I will experience this within the next 5 to 10 years. Yeosu has nine high schools and some of those schools may close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s a teacher, this could pose a problem for my livelihood.

This issue threatens my livelihood as a teacher. This crisis will affect not only elementary, secondary, high school, and university education but also society as a whole. Currently, the average class size is around 25 to 26 students per classroom, but there is room to reduce class sizes further. However, if the class size falls below 20, there could be significant changes in the education system depending on the polic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ocial consensus. The low birth rate will likely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s in the education field, as well as throughout society.

Furthermore, with the development of network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raditional teaching roles are also facing changes or challenges. In the era of low birth rat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education system needs to find its own identity and purpose. There is a need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content that only teachers can create, which requires students to attend school,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curricula and teaching methods that fit classrooms with fewer than 20 students per class. Lastly, I would like to ask if you have any last words to the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e Korean education system.





(A) There are reasons why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human labor resources and a high standard of education are prioritized for economic development growth in Korea. And as mentioned before, as long a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remains an important aspect of academic success, students will consider admission to a prestigious university their ultimate goal. There were many factors such as these in our school education, but as time went by, there were some changes in their mindset.

Creative and just democratic citizen, as raising a global citizen who is aware of global issue has become a bigger priority, there has been a lot of support to reform the education system more than in the past. Changes in Korean education have already transformed this society, which will bring about a new start shortly.

We would like to ask for everyone across the world for their continuous attention towards this topic. I've recently started to talk continuously about the diverse cultures of my students and how important diversity is. We will try our best, as the ever-expanding globalization and diversity will help us raise the youth of tomorrow.

(Q)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coming here. Despite your busy schedule, you've given us an interview and giving us your fresh perspective.

(A) Your wel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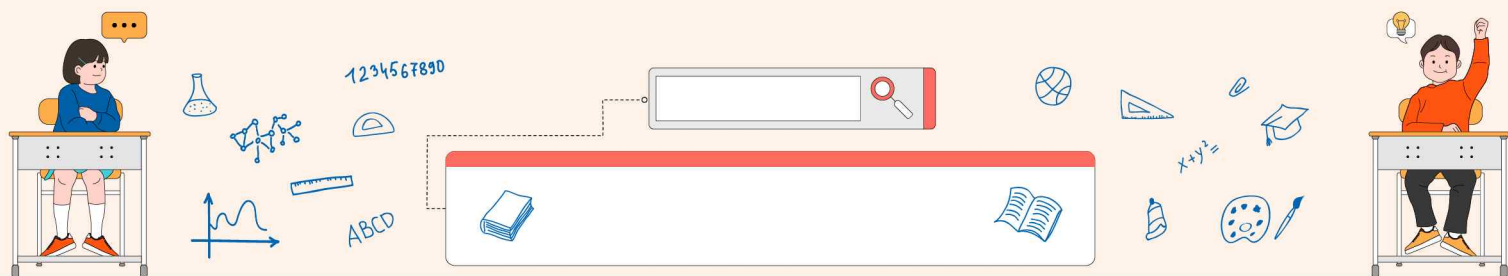
We've heard from teachers about the state of Korean teachers from themselves, next course will explore about the finance in the education sector. In the next course, I will look at education finance.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6周

教员

6-1

韩国教员

学员们，大家好。我是负责《韩国经济和韩国教育》讲座的高鲜。在这次讲座中，我们将以“教师”为主题进行讨论。在学校教育中，教师是引领学生教育的核心成员。教师的人工费在学校教育费用中也占了很大一部分比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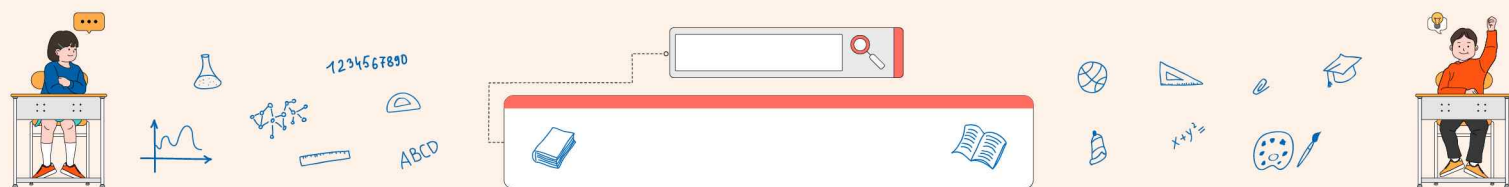
首先，我们将了解韩国教育中教师的现状、教师培养机构的进化过程、教师劳动市场的变化、教师职业的女性化等。在最后一节课里，我会邀请一名在职教师，听取教育现场的声音。首先，让我们对韩国教师的现状进行概述。

教师人数的趋势通常与学校教育的膨胀趋势相似。因为我们需要更多的教师来容纳更多的学生到教育现场。殖民地时期普通学校教师数量不断增加，其中教师数量迅速增加的1920年代初和1930年代中后期也是初等教育急剧膨胀的时期。

曾是男子中等教育机构的高级普通学校教师在1910年代和1920年代初期迅速增加，之后增加的趋势变得缓慢。在殖民地时期初，学校建立时期过后，开始缓慢成长。女子高级普通学校从1920年代开始持续缓慢增长。

每位教师的人均学生人数经常被用作衡量学校教育质量的指标。也可以了解到随着学生人数的增加，教师人数是否也有了充分的增加。以殖民地时期基础教育为例，普通学校的教师人均学生人数在1920年代初和1930年代中期大幅增加。当学生人数快速增加时，教师的充员就会有所推迟，教师人均学生人数也会增加。

此后，每位教师的人均生人数有所减少，但相比以前更高的水平几乎保持不变。因此，殖民时期初期30名左右的教师人均学生人数在1920年代将增加到50名以上，殖民时期末增加到70名以上。



比较普通学校和小学的教师人均学生人数，小学在30多人中保持不变。可以看出，根据日本学生人数，学校的成立和教师的充员是有计划地持续进行的。以中等教育为例，中学和高级普通学校的教师人均学生人数在殖民时期有相似的趋势。

对朝鲜人，即韩国人的中等教育进行得相当有限，但在教育质量方面，至少从教师人均学生数来看，日本人中等教育和韩国人中等教育之间似乎没有太大差异。

以韩国女性中等教育机构女子高级普通学校为例，教师人均学生人数反而要比高等女子学校的学生少。对于女性教育的机会似乎比日本人更局限于朝鲜人。中等教育机构的人均学生人数到殖民地时期末为止只有25人左右。

解放后，韩国的教师人数迅速增加。从韩国战争结束到1990年左右，小学、初中、高中的教师人数都在稳步增加。1954年小学教师为40869人，初中教师9147人，高中教师6266人。

直到1990年，小学教师增至136,800人，初中教师89,719人，高中教师92,683人。1990年代有所放缓的教师人数增长趋势自2000年代以来，尽管学龄人口正在减少，但仍在持续增长。因为虽然学生人数减少了，但小规模学校的结构调整并没有顺利进行，而且随着新城市的开发等带来的新学校的建立和运营仍在继续。

幼儿园方面，从幼儿园教育扩大的1980年代开始，教师人数迅速增加。到目前为止，幼儿园教师的数量也在不断增加。

屏幕上的图表同时显示了从之前看到的殖民地时期到现在的每位教师人均学生人数的趋势。在初等教育方面，虽然在殖民时期每名教师的学生人数大大增加，但自解放以来一直在稳步下降。到1980年左右，尽管学龄人口持续增加，但教师人均学生人数却有所减少，这表明教师的招聘，特别是政府的教育投资一直在增加。

在初中和高中，教师人均学生人数在解放后变得更多。因为与殖民地时期相比，教育机会变得更多了。在1960年代和1970年代，尽管中等教育不断扩大，但教师人均学生人数并没有大幅增加。此外，1980年到达顶峰且开始慢慢减少。因为教师人数的增加已经超过了学生人数的增加。



到目前为止总结了韩国中小学教师数量膨胀的过程。随着学校教育的扩大，教师人数也迅速增加。在殖民地时期基础教育方面，教师人数的增加没有跟上学生人数的增加，因此教师人均学生人数大幅增加。

但解放后，小学教师的人均学生人数呈下降趋势。因为在学校教育的膨胀中，积极充员了教师。当初中和高中在扩大和膨胀的过程中，教师招聘速度也在迅速增加，教师人均学生人数没有大幅增加，并从1980年开始减少。

最近，尽管学龄人口减少，但教师人数持续扩大，这使教师人均学生人数持续减少。下节课让我们来看看韩国的中小学教师培养。谢谢。



**6-2****教员培养**

学员们，大家好。上节课我们了解了韩国中小学教师数量膨胀的过程。本节课将回顾从殖民地时期到现在，韩国教员培养制度的变化过程。

1910年朝鲜成为日本殖民地后，殖民地政府最初想任命在日本培养的日本人担任公立普通学校的教员。但仅凭日本人很难满足对日渐增长的普通学校教员的需求。所以制定了培养朝鲜人教师的制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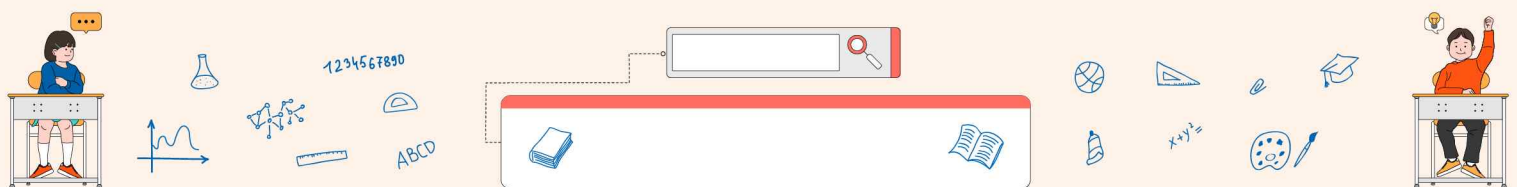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最初，在高级普通学校和女子高级普通学校建立了为期一年的师范系或教师速成系来培养教师。之后还设置并运营3年制临时教员培训班。从1920年开始，设立并运营了教员培训班。

1922年朝鲜教育令修订后，建立了官立或公立的师范学校。师范学校设立了第一部和第二部，第一部培养小学教员，第二部培养普通学校教员。师范学校是普通学校毕业后才可以入学的中等课程，以5年制至6年制运营。高级普通学校或女子高级普通学校毕业后，可以在师范学校练习科接受1年的教育后成为教师。

1938年第三次朝鲜教育令废除了师范学校的第一部和第二部体系，改编为单一体系。这是将普通学校合并为小学并合并课程的结果。

高级普通学校和女子高级普通学校的教师大部分是在日本接受教育并取得教师资格的日本人。他们通常毕业于日本的高等师范学校或外语学校。同样，为了满足教师不足的需求，日本也有以向高等师范学校的学生支付奖学金为条件，需要毕业生必须在毕业后在殖民地担任教师的情况。还免试的方式对京城帝国大学预科结业者、法学部毕业生、水原高等农立学校毕业生进行了资格认证与聘用。

私立学校的教师也和公立学校的教师相似。在私立中学方面，私立专科学校的毕业生也有正为教师的例子。





对于殖民地普通学校的教师，与日本不同，没有单独的许可制度。有小学和普通学校教师考试第一类、第二类、第三类，各考试合格者分别被认为与日本小学本科正教员、寻常小学本科正教员、寻常小学准教员许可持有者相同。对于私立学校教师，必须通过道里每年实施一次以上的私立学校教师考试。

在中学教师方面，大部分持有日本高等师范学校和外语学校毕业的日本中等学教师资格证。随着学校数量的增加，也有像之前所说的那样，对大学和专科学校毕业生进行免试鉴定，授予中等教员资格证并聘用为教师的情况。

另外，日本文部省还实施了通过考试颁发中等教师资格证的制度，殖民地居民也可以报考。所以也有通过这个制度成为中等教师的情况。

解放后，在教员中占相当比重的日本教员回到了日本。因此，一线学校出现了严重的师资短缺现象。为了解决这个问题，应对不断膨胀的正规教育需求，美军政期推出了各种小学和初中教师培训的短期课程。

为了培养小学教师，最初设立了短期教师培训班，之后在师范学校设立了培训课、速成课、临时小学教师培训班等短期课程。也有在中学设置师范科的情况。同时增设了小学教师培养机构-师范学校。

对于中等教师，也设置并运营了各种短期培训课程，其中包括中等教师培训班、中等教师培训课、中等教师学习班、准中等教师培训班、语文教师培训班等。这些短期课程一直持续到了1950年代。

另外，建立了正规中等教师培养机构-师范大学。到了1950年代，中学教师将在两年制师范大学培养，高中教师将在四年制师范大学培养。从职业大学毕业后，在没有教育的情况下，也可以成为中学教师。从1950年代开始，在普通大学设立教学课程，即使不毕业于师范大学，也可以在普通大学完成教学课程后成为中学教员。

到1960年代，相当于高中课程的师范学校升格为两年制教育大学的初级大学。1962年成立了10所教育学院，1975年增至16所。





由于对小学教师的需求持续膨胀，短期教师培训课程也一直在运营。1964年至1967年，在教育大学设立进修教育制度，从初级大学以上毕业的人可以在接受5周至8周的短期教育后成为小学教师。从1967年开始，在教育大学设立了小学教师培训班，可以在高中或大学毕业后通过18周的短期培训成为小学教师。

当时对于中等教员的需求也很大，除了师范大学和普通大学教职科外，职业教育系、普通大学教员教育系、教育研究生院等中等教员培养机构增加。还运营了短期培训课程，其中包括教育研修院、临时中等教师培训等。

到了1970年代，人们开始担心小学院供应过剩。因此，5所教育学院关闭，原本在教育学院附属运营的教员培训院也消失了。从1960年代开始培养准教师的临时小学规范性所也停止了运营。

另外，在新成立的韩国广播通信大学设立并运营了小学教育系。在该课程中，还培养了小学课程准教师，并对在职小学教师中未达到初级大学水平的基础学历的人进行了在职教育。

随着对教师需求的增加，中学教师培训课程将继续采用1960年代的方式。文教部长官指定的大学职业系毕业生即使没有完成课程，也可以成为准教师。

1981年，在过去为两年制的教育大学现在依次转换为四年制大学。名义上延续的进修教育制度和临时小学教师培训所等也被完全废除。

从1980年代开始，对于中等教育，人们开始担心教师供应过剩。因此，1970年代出现的实业系列指定大学制度被废除。普通大学的课程完成人数也限制在定员人员的30%以内，并提高成绩标准。

此外，减少国立师范大学的定员，小型私立师范大学改为普通大学等，减少了师范类大学的定员人员。1985年成立了培养小学和初中教师的国立韩国教师大学。

教师资格制度也随着教师培养制度发生了变化。解放后的美军政期时延续了殖民地时期的制度。实行教师执照制和教师聘用资格考试制度。1948年制定教师资格规定后，开始了中小学和高中教师资格证的颁发。



1953년制定教育公務員法，并制定教育公務員資格鑑定令。教師資格證的有效期限定為10年，之後接受規定的培訓并更新。教師資格分為通過教師培訓機構教育獲得的免試認證和通過考試授予資格的方式，考試認證又分為銓衡鑑定和學歷認證考試鑑定。

1963年，隨着教育公務員法的修正，形成了目前的教師資格體制。教師資格包括一級正教師、二級正教師、准教師、教導教師、圖書管理教師、實技教師、保健教師。教育局長、督學官、監察師、教育研究員、教育研究師等被定為教育專業職業，但這些職業都是無資格證經營的。

另外，將初中和高中教師資格證合併為中等學校教師資格證。1953年原定為10年的教師資格證期限也延長至退休年齡。1964年制定教師資格鑑定令。教師資格限定為20歲以上，開始在教師資格證上標注主修科目。此外，還規定了為獲得上級教資的再教育培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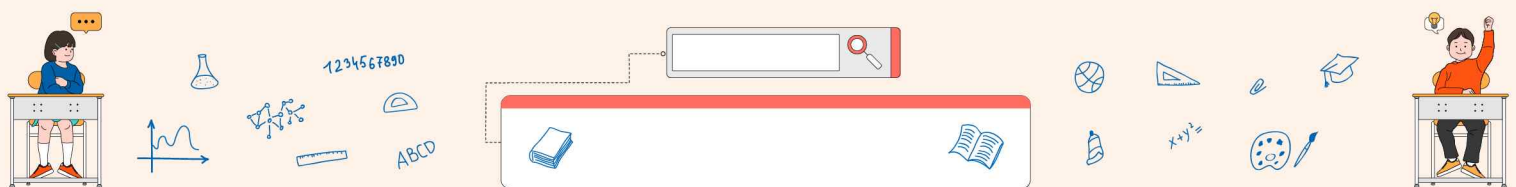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1965年開始向教育研究院結業人員頒發中學教師資格證。1982年，在加強教師資格免試鑑定條件的同時，完善了當時的教師資格制度。從1988年開始，將教師資格鑑定委託給各大學的校長。

目前，從教育學院、師範學院、教育學院等畢業後，將獲得各資格的二級教師資格證。之後，如果教學經歷等超過一段時間，可以接受培訓並獲得一級教師資格證。

那麼，實際教師的聘用是以什麼方式進行的呢？在韓國中小學教育普遍擴大的過程中，教師需求嚴重不足。學校教育的擴大由公立學校主導，政府為了公立學校積極確保優秀教師而實施政策。

1953年開始政策，國立教師培訓機構的畢業生和持有高級證書的人優先錄用到國、公立學校。1963年制定了優先聘用公立師範大學和其他培養機構的畢業生及結業人員比率的政策。這些國、公立教育大學和師範大學畢業生的國公立學校優先聘用制度於1990年被判定違憲。此後，轉換為由國、公立大學出身和私立大學出身的畢業生一起競爭考試的公開選拔制。

雖然國、公立學校優先聘用了國公立教育大學和師範大學畢業生，但與整體教師需求相比仍然不足。隨着經濟的快速增長，也有很多人雖然畢業於國、公立教育大學和師範大學，但沒有成為教師，而是在普通企業等就業。因此，還引入了以授予獎學金為條件的義務服務制度。



教育大学从1969年到1992年引入入学军团士官候补生，即RNTC制度，男性毕业后担任国民学校教师，可以代替服役义务。国、公立学校还聘用了私立师范大学的毕业生和普通教职课程进修生，1973年起，实行新教师聘任等级考试，用于任用。

等级考试最初也用于私立学校的聘用，但私立学校由于财政困难等原因，新教师聘用率较低。所以从1977年开始，只实施公立学校的新教师聘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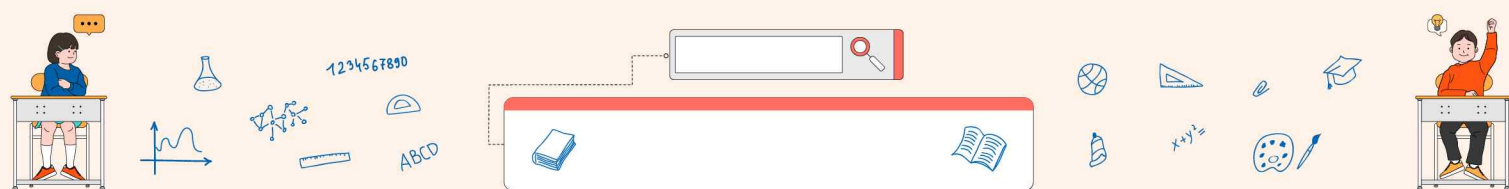
根据1990年国、公立师范大学毕业生优先聘用制度的违宪判定，从1991年开始实施教育公务员聘用候选人选定竞争考试。是由市、道教育监实施和选拔的方式。在进行竞争考试后，也有一段时间对所在市、道的教育大学或师范大学毕业生进行了地区加分，给予了优待。

但是，中等教员师范大学地区加分制度在2004年被判定违宪。所以当时推迟到师范大学入学学生毕业的2010年，从2011年开始废除了地区加分制度。

私立学校基本上通过自己的选拔程序任命教师。为了在私立学校也能聘用优秀的教师，从1973年开始允许私立学校聘用国、公立师范大学毕业生。另外，从1982年开始实行将有经验的私立中小学教师特别聘用为公立学校教师等教育公务员的制度。当初引进的宗旨之一是为了减轻私立学校的财政负担。

如果教师的工资是根据定岗年薪决定的话，那么根据教师的经历增加学校的财政负担也会加重。因此，通过该制度，私立学校中有经验的教师退休后以新教师的身份重新被聘用，这样会减轻人工费负担。该制度一直得以延续，但在2010年代引发一系列争议后，正朝着强化要求的方向发展。

到目前为止我们总结了韩国的教师培养、资格、聘用相关制度是如何建立的。目前，韩国的小学和初中教师通过教育大学、师范大学、普通大学的教职进修、教育学院等进行培养。在教员培训机构接受培训，如果满足一定条件，根据免试鉴定制，通常获得二级正教师的资格。



以后如果满足工作经历等一定条件，将获得一级正教师资格。国、公立学校教员目前通过教育公务员聘用候选人选定竞争考试聘用。私立学校自行选拔任用教员。过去学校教育膨胀的时期，师资不足的问题非常严重。因此，有多种准教师培养体系，短期内速成培养任用教师的情况也很常见。

学校教育普及后，相反，对教师超量供应的担忧越来越大。为了提高学校教育和教师的质量，强化了资格标准，聘用过程的竞争也加强了许多。下节课我们将讨论教师的工作时间和薪酬。谢谢。



### 6-3 教员工作时间和薪酬

学员们，大家好！上节课我们考察了韩国的教师培养、资格、聘用相关制度是如何建立的。这节课我们来看看韩国教师的上课时间和薪酬。

OECD每年都收合并公布各国的主要教育指标。据该资料显示，韩国中小学年总授课周数为38周，与OECD平均水平持平。上课周数是法律规定的。韩国的中小学年总法定授课日数为190天。OECD的平均值为182天至185天，是略高于此的水平。

课程周数和课程天数由法令等制度规定。另外，还有关于教师上课时间的资料，这些资料是根据单独的统计调查制作的。但其中正规课程、特别活动、裁量活动课程时间，午餐时间、休息时间、备课时间、生活指导时间等都被排除在外，可以说比实际教师的工作时间要小一些。

以2021年为准，教师人均年净上课时间为小学672小时，初中517小时，高中540多小时。OECD的平均值为小学784小时，中学校711小时，高中684小时。与OECD的平均值相比，可以发现韩国教师每年的净授课时间要比OECD的平均值少100多小时。

教师的工资水平很难在国家之间进行比较。因为工作条件不同，而且很难考虑不同经验的差异。屏幕上的表格将韩国、公立学校教师的年法定工资水平与OECD平均水平进行了比较。其中提出的工资额单位为美元，采用了以购买力平价指数换算的汇率。

与初任水平相比，韩国教师的年法定工资与OECD平均水平持平或略低。但是，如果有15年的工作经验，韩国教师的年法定工资变得比OECD的类似年度教师的年法定工资额高出约7000美元至10000美元左右。与最高年薪相比差异更大。韩国教师的最高年薪，即法定最高年工资超过95000美元。OECD的平均价格在60000美元左右。相差30000美元左右。

这些韩国和海外其他国家的教师工资水平差异源于韩国制度的特殊性，该制度旨在根据职业年数大幅提高工资。韩国的最高定岗年薪一般所需要37年而OECD所需的平均为26年，因此也有差距。





但总的来说，韩国教师的工资水平还是比其他国家高。每年的法定工资额包括工资、勤奋奖学、福利费、教员研究费等。因为不包括经常支付的勤奋奖学，所以实际教师的领取额比普通工资者更高。在高中，如果获得补课津贴等，教师收入可能会更高。

韩国政府支援的私立初中和高中教师得到的劳务费几乎与公立学校教师处于同一水平。所以可以认为私立学校教师的薪酬水平也和公立学校差不多。

国、公立学校教员是拥有教育公务员身份的。所以从1962年开始享受公务员年金制度的优惠。私立学校教员可以享受从1975年开始单独设立的私立学校教职员年金的优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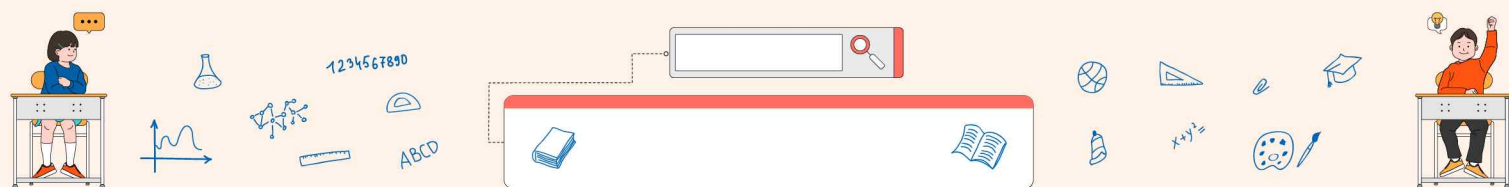
过去，教师的工资水平不算高，从家长那里得到另外的财政支援的情况很常见。家长对教师的财政支援是通过后援会、师亲会（老师家长联谊会）、期成会(由家长和援助者组成的后援会)等组织进行的，也有个别家长以“红包”的名义偷偷提供。

为了提高教师的社会地位，从1982年开始每年将5月15日定为教师节进行纪念。家长给教师的“红包”问题，随着2016年禁止不正当请托法的实施而消失。

到目前为止，我们整理了韩国教师的上课时间和法定工资等工作条件。从OECD教育指标来看，韩国中小学教师的年均教课时间较少。除起薪外，法定工资水平普遍较高。

国、公立学校教员可享受公务员年金，私立学校教员可享受私学年金。此外，每年5月15日也被指定为教师节进行纪念。过去横行的红包问题随着2016年禁止不正当请托法的实施而消失。

《韩国经济与韩国教育》的第六讲就讲到这里。在此次讲座中，我们考察了韩国教育中教师的现状、教师培养机构的进化过程、教师劳动市场的变化等。下节课，我将邀请在职教师，听取现场的声音。谢谢。



## 6-4

## 教师访谈：骊州高中教师

学员们，大家好！这节课将邀请在教育现场的教师，即学校老师进行交谈。今天和我一起出席的是骊州高中社会教师金智勇老师。金智勇老师您好。

(答) 你好。我是骊州高中社会教师金智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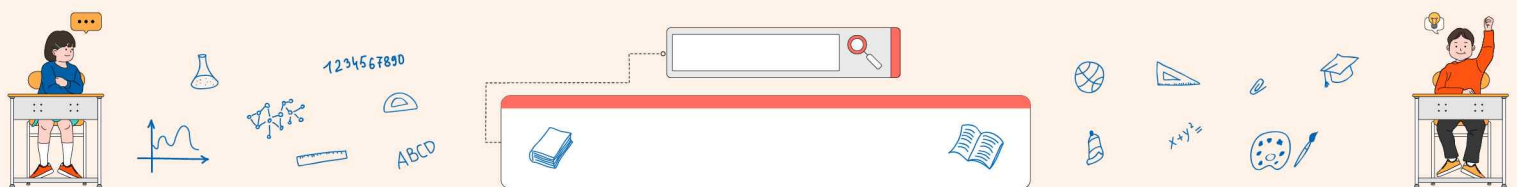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问) 请简单地自我介绍一下。

(答) 好的，我从2004年开始在骊州高中担任社会科教师。除了教授社会文化、政治和法律等科目外，还在学校负责学生生活安全和体验学习等工作。

我工作的骊州高中有462名学生，18个班级。教师有40人。教师中有一位校长和一位校监（教导主任），还有九位部长教师等多个职务。我们学校有245名男生和217名女生。教师中男老师为24人，女老师为16人。教职员中，除了教师之外，还有行政室职员、伙食室职员、行政辅助室职员等。

(问) 首先，您能告诉我您是如何走上教职之路的吗？

(答) 刚开始考虑职业的时候，教师不在优先位置。学生时代，教师这个职业看起来也不是很好，用俗话说不是什么很帅的职业。后来来到大学，接触了教育学领域的课程，了解到可以通过我的知识和努力，让学生们变得更加成熟，这一点开始变得越来越有吸引力。可以把我喜欢的地理学或社会科学的内容与继续与职业联系起来，这一点也很好。





(问) 刚开始当教师之前对教师这个职业的想法和真正成为教师后接触现实时最不一样的地方是什么?

（答）在成为教师之前，我模糊地认为好教师是对自己的科目知识很丰富的人。然而，从我目前在实际教学的感受来看，我认为教师最需要的技能是人际交往能力，因为教师要面对、教导和咨询那些整天感到代沟的学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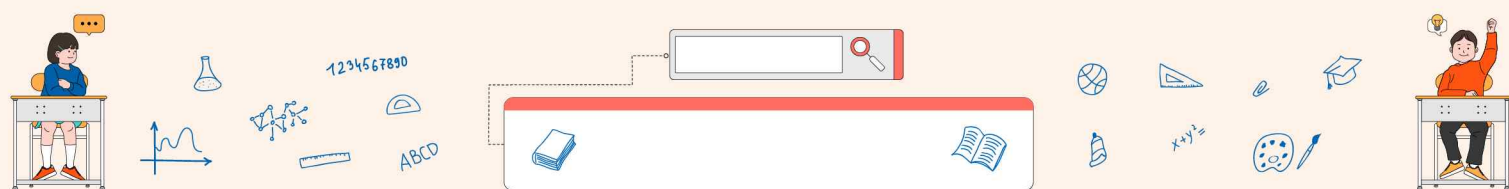
我认为，要想与学生相处融洽，同时又能很好地进行教育，还能进行教导，并能解决矛盾，人际关系能力是必不可少的，也是成为一名好教师的最重要因素。事实上，对自己的教学工作不满意或正在考虑换工作的很多教师都是在这方面遇到困难的。

(问) 您是不是专攻政治外交学, 后来修了教职课程, 之后又在师范大学专攻地理教育学, 成为了教师的吧? 在成为教师之前, 您也曾军在军队担任过军官, 大学毕业服完兵役后, 除了教师之外, 您还有很多职业可以选择, 但让您决定成为教师的原因有哪些?

（答）在攻读政治外交学的过程中，一开始只是为了获得相关资格证而进修了课程制度。同时，对教学工作进行了具体的思考，为了成为一名教师，转入师范大学专修地理教育学。在陆军担任过负责宣传业务的军官。

每个人在20多岁的时候都会思考和探索各种职业前途，我也差不多。我当时最关心的领域是旅行和摄像。我也想过当摄影家和旅行作家，但教师，特别是地理教师和社会教师，可以以摄影或旅行为主题进行实际教学，在与学生分享相关经验的同时，让学生成长为视野更广的人才，对我来说这一点是很大的魅力。

当学生们告诉我，因为我，他们知道了旅行或各种文化体验的乐趣和重要性，或者看到毕业生进入相关领域的时候，我感到很有意义。另外，韩国漫长的寒假与其他普通工作不同，可以满足我的旅行需求，在韩国教师这一职业在一定程度上稳定的现实原因也不容忽视。



(问) 现在我们来谈谈教育现场。在韩国当教师最重要的部分是什么？

(答) 在韩国，社会阶层上升的主要手段还是教育。在我的学生时代更是如此，现在学生的家长们也有类似的想法。所以，家长们仍然在子女教育上下功夫，在很多教育费用的支出和投资上毫不犹豫。

但是现在韩国的中高等学生的想法可能有点不同。韩国已经生活在比任何时候都富裕和平的时代，在成长的过程中享受着很多东西。在此期间，韩国的绝对贫困阶层也消失了，所以学生们对阶层上升的欲望并不大。另外，我也目睹了很多并不是靠学历或教育的经济阶层的上升。例如房地产，股票投资，虚拟货币，艺人，Youtuber等。

可以说家长和学生对学校教育的指向不同。家长们仍然希望通过传统的学校教育在入学考试中取得成功，但学生们则希望有一些不同的新形式的教育。教师存在于这一鸿沟之中。我认为在一定程度上实现每个学生家长想要的东西的同时，扮演一个平衡的调解人的角色很重要。



(问) 作为教师工作时感到困难的地方有哪些？

(答) 虽然有很多困难，但我只说两件事。首先是学校行政的过度膨胀。行政的过度膨胀给教师的角色带来很多限制。当然，我认为行政的过度膨胀不仅仅是学校的问题。教师的基本作用是授课，学生咨询，指导。如果行政过度膨胀，便很难忠实于基本角色。

当然，如果能24小时工作的话都有可能，但实际上是不可能的。如果为了上课，为了评价，为了咨询，要制作很多行政文件，并向教育厅全部报告的话，本质上难免会疏忽。我认为教育目标和行政手段颠倒的目的转变是个大问题。

另一个是指导学生的困难。随着时代的变化和学生人权保障的扩大，韩国学校的学生指导也发生了很大的变化。禁止体罚和扩大学生人权保障显然是必要的，可以说是巨大的成就。但是，目前还缺乏适应时代变化的新的学生指导体系所以指导学生存在困难。

当然，现在如果违反校规或犯了大错，也会用各种方法指导和制裁学生，但通常会让他们在校内服务。从学生的立场来看，像校内服务这样的处罚不是那么辛苦或感到负担，所以没有实效性。

此外，对学生指导不满意的学生可能会谎报老师没有做过的行为，使事情变得困难，从而可能导致学生指导被忽视。如果其他学校发生的类似事例通过媒体曝光，教师们会有很多同感的地方。



(问)这段时间您做了近20年的教师，第一次当教师和现在的教育环境相比，主要有什么区别？

(答) 教育环境设施的变化似乎出乎意料地不大。只是每个班级的人数都减少了很多。今年一个班大概有26名学生。教师的人员构成也有一些变化，可以说是合同制教师的临时聘用教师的比例大幅增加。合同制教师比率增加的主要原因是因为学龄人口持续减少。

最大的变化之一是学生的教育福利大幅增加。由于教育拨款的增加，教育局的教育预算有了充裕的空间。随着民选教育总监的出现，以无偿供餐、无偿校服等为代表的学生的教育福利大幅增加。学生需要的物品、课后课程、体验学习等教育活动所需的金额也几乎得到了支援，这方面似乎发生了很大变化。当然，也伴随着福利增加带来的副作用。



(问) 现在我们来谈谈学生们。叫MZ一代吗？在老师看来，现在学生的特点有哪些？

(答) 现在进入初中和高中的学生将是与现有MZ一代不同的另一代。虽然不知道该怎么命名，但肯定还有不同的地方。我是曾经X一代，从老一代的立场来看，现在的学生应该也是X一代。因为从老一代的观点来看，有很多地方无法理解。

我会进行否定评价和肯定评价。首先，负面的部分与刚才所说的扩大教育福利的阴暗面也有关系，现在学生和老一代不同，是受益匪浅的一代。当然，韩国的福利与其他西方国家相比也有不足之处，但从老一代的立场来看，扩大了很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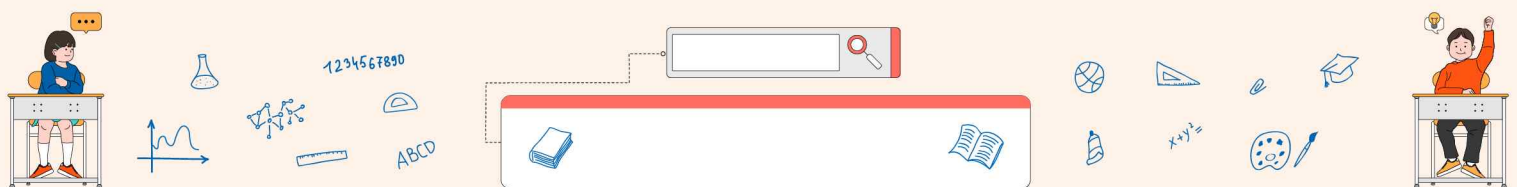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现在的学生从出生，婴幼儿时期，上中小学和高中的时候都得到了各种各样的好处。一年前的这个时候，我负责的业务之一是向京畿道全体学生支付20万韩元的新冠慰问金。

由于疫情，远程教学扩大，免费供餐天数减少，每个家庭都配送了有机农产品包，还支付了农协可以使用的现金积分。因为嫌麻烦而不申请的学生，班主任甚至亲自为了学生加入会员，并支付给了他们。

媒体每天都会出现青年津贴、青年福利等用语。福利的扩大当然不是问题。问题是，认为福利是理所当然的事情，所以对福利的依赖度越来越大。有时如果有没有支援的地方，学生们就会无法理解。我认为现在学生一代的负面特征是自己遇到的困难大部分归咎于国家和制度上。

相反，也有很多积极的特点。老一代无法理解的他们的特征内部，有很多非常动态、善良和创意的一面。韩国人传统上拥有的热情、毅力和正义感也保持不变，非常有创意。现在在世界上备受关注的K-POP和k-电视剧等k-文化的核心来自于这种创意和独创性。

虽然有时从老一代的角度来看，可能会担心“以后要靠什么生活”，但我不担心，因为我认为韩国未来的成长动力肯定会来自现在的学生一代独有的独创性和创意性。





(问) 那与教师的关系如何? 以前普遍认为老师是敬畏的对象, 严厉而害怕的存在, 但最近常常返现, 师生之间的关系变得亲近和熟悉了很多。好像是通过SNS聊天工具互相联系, 实际上怎么样?

(答) 是的。现在教师不再是敬畏或害怕的人了。和以前相比, 整体上关系变得亲近了很多。当然, 每个教师与学生们的关系都有所不同。

虽然我已经和学生们有很大的代沟, 但我正在努力从学生的角度建立关系。在与学生的沟通手段中, KakaoTalk等聊天工具的比重相当大。如果没有聊天工具, 甚至无法对话。有时还会和上课的学生或社团的学生一起买零食吃。

(问) 家长和教师的关系怎么样? 有很多与家长联系和沟通的机会吗?

(答) 首先, 班主任与普通教师相比, 与家长沟通的机会更多一些。主要是入学考试咨询, 有时学生出现问题时也会进行沟通。但总的来说, 与以前相比, 与教师进行一对一沟通的次数确实减少了。

关于高考和学校生活, 家长从外人那里得到建议的情况似乎很多。稍微消极地分析一下的话, 我认为比起以前, 对彼此的期待值降低了很多也是原因之一。学生和教师的关系也很难再说成是师徒关系。



(问) 这次我想问一下学校的情况。老师所在的学校是私立学校，您能站在教师的立场上告诉我私立学校和公立学校之间有什么区别吗？

(答) 在韩国，从学生和家长的立场来看，公立和私立几乎没有差别。只是在教师的立场上有一些差异，其中最大的差异是每几年换一所学校，还是继续在同一所学校工作。

这各有优缺点，以我工作的私立学校为标准，优点是对继续工作的地区及其学校有很高的理解度，对地区或学校有相当大的热爱。我认为这种关心和关爱对学校的教育活动起到了积极的作用。

但是缺点是因为过于熟悉的教育环境，新的变化，对新领域的挑战确实有点不足。另外，同事教师也有很多长期一起工作的人，我认为这些特点既是优点也是缺点。

(问) 您的学生时代是在首尔度过的吧？现在工作的地方离首尔有点距离，首尔或首都圈地区和这里骊州的教育环境相似吗？在老师看来，有哪些不同之处？

(答) 第一次来我工作的骊州的时候，它是郡地区。所以骊州的学生们在大学入学考试中得到了农渔村特别录取的优惠。但现在，随着骊州升格为市，这种好处也没有了。

骊州和首都圈的很多城市一样，也是城乡综合城市。在骊州高就读的学生中，90%居住在繁华且受益于城市中心功能的市区，而不是面或邑地区。事实上，骊州的学生大部分与首尔、仁川等大城市的学生在日常生活、教育环境、风格、价值观等方面没有什么不同。我觉得这一点不仅在骊州，在韩国所有地区都很相似。

城市、农村、渔村等传统的地域划分也不再有意义，特别是对学生来说，意义不再重大。因为在江原道生活的同时，无论何时何地都可以接触到首尔著名补习班讲师的讲课。但我认为，各地区的学习能力差距仍然是一个大问题，各地区的学习能力差距不是城市与乡村的学习能力差距，而是除首尔江南和江南以外的其他所有地区的差距。





(问) 韩国最近生育率下降，学龄人口迅速减少。老师也在现场感受到了这些吗？您预计在未来学龄人口进一步减少时，教育现场会发生什么变化？

(答) 因为在高中工作，所以还没有太大的感受。最近骊州一年的出生人口不到500人。这种低出生率的影响将从小学开始，我也将在5年至10年内感受到很大的影响。骊州有9所高中，由于这些低出生率，一些学校可能会停办。

对于身为教师的我来说，这可能会成为生计的问题。中小学和高中、大学都面临同样的危机。目前每个班级有25到26人左右的定员，每个班级还有进一步裁员的空间。问题是，在20人以下时，根据教育部的政策或社会协议，教育环境将发生巨大变化。当然，低出生率的影响不仅会给教育现场和学校带来根本性的变化，还会给整个社会带来根本性的变化。

此外，由于网络和人工智能等的发展，传统教师在各科目教学中的角色也在发生变化或危机。配合低出生率和人工智能的时代，学校教育应该寻找自己存在的理由和认同感。开发只有教师才能做的、只有上学才能做到的教育内容，开发适合每个班级学生数在20人以下的课堂环境的教育课程和开发教学方法也很有必要。



(问) 最后,有什么想对很多对韩国教育感兴趣的人说的吗?

(答) 韩国经济增长的原因很多是人力资源的持续开发和对高教育的热情。因此,全世界也非常关注韩国的教育。另外,正如刚才所说,仍然有很多韩国人认为教育是提高阶层的最重要手段,学校教育成功往往被认为是名牌大学的入学。虽然这些部分仍然占据着韩国学校教育的重要部分,但随着时代的变化,韩国的学校教育发生了很多变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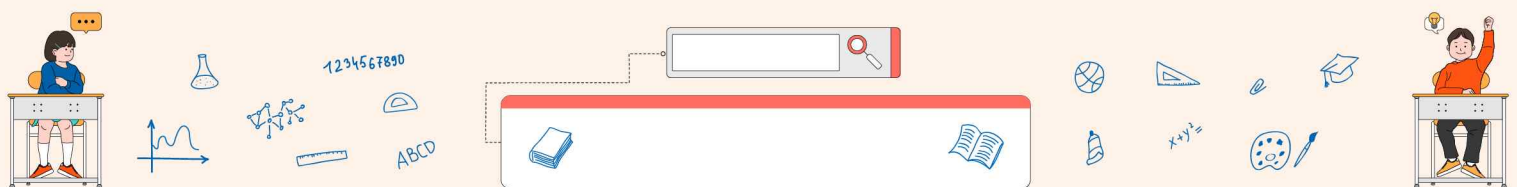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培养创新人才、正义的民主公民和具有国际意识的全球人才现在已经成为更重要的课题,教育财政的支持也比过去多了很多。这种韩国教育的变化已经给整个韩国社会带来了很多变化,在不久的将来还会带来另一个大韩民国的诞生。

也希望全世界的各位继续关注和支持。我最近也在课堂上不断向学生介绍世界各地的各种文化,说明文化多样性的重要性。我们将尽最大努力培养能够在未来更加先进的全球化和多文化主义时代和谐相处的人才。

(问) 感谢您在百忙之中接受采访,并为我们传达很多现场生动的故事。

(答) 谢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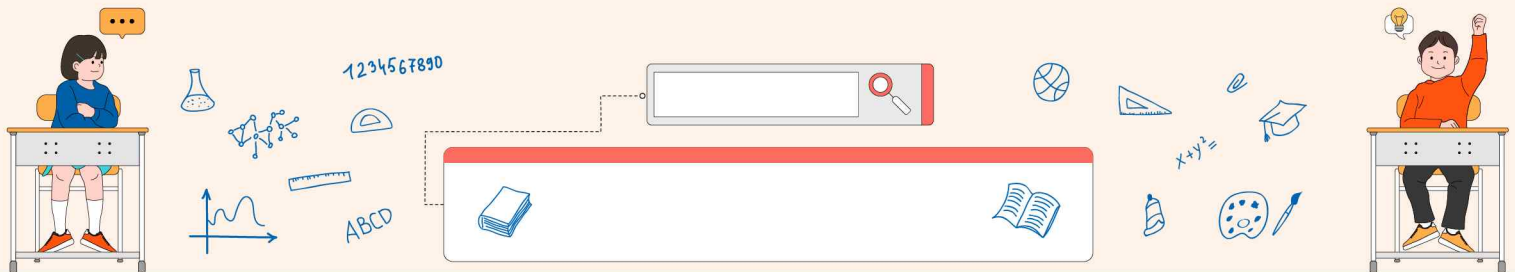
到目前为止,我邀请了现任教师,听取了韩国教师的心得。在下一讲里将介绍教育财政。谢谢。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퀴즈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퀴즈

### 01 다음 중 식민지기 초중등교원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보통학교 교원 수 증가속도가 학생 수 증가속도보다 더 빨랐다.
- ②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소학교보다 보통학교가 더 많았다.
- ③ 중학교와 고등보통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비슷했다.
- ④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고등여학교보다 더 적었다.

정답 ①

**해설** 식민지기 초등교육의 경우 교원 수 증가가 학생 수 증가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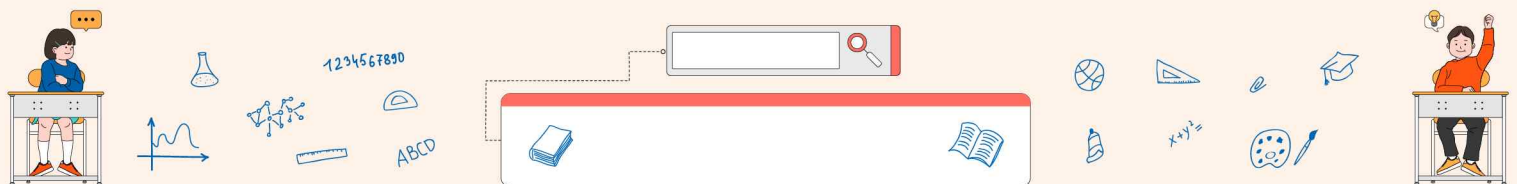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 02 다음 중 한국의 교원 양성 제도 변화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식민지기의 중등학교 교원은 대부분 일본에서 교육받은 일본인이었다.
- ② 초등교원은 공급확대를 위해 종종 임시 또는 단기 육성과정을 설치해 운영했다.
- ③ 1950년대 이후 중등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을 졸업할 필요가 있었다.
- ④ 1970년대에는 초등교원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로 교육대학 다섯 개의 문을 닫았다.

정답 ③

**해설** 사범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중등교원이 될 수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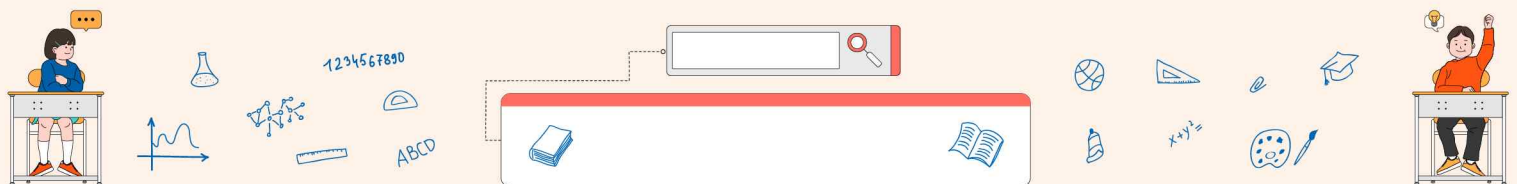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 03 다음 중 한국의 교사 자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초·중·고교원을 위한 교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② 교사자격 검정을 위해 매 년 국가에서 교사자격 취득 검정시험을 실시중이다.
- ③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 경력과 연수 경력이 필요하다.
- ④ 교사 자격증은 정년까지 유효하다.

**정답 ②**

**해설** 1982년부터 교사 자격 무시험검정 제도가 정비되었고, 1988년부터는 교사자격 검정을 각 대학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하였다. 따라서 대학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시 교사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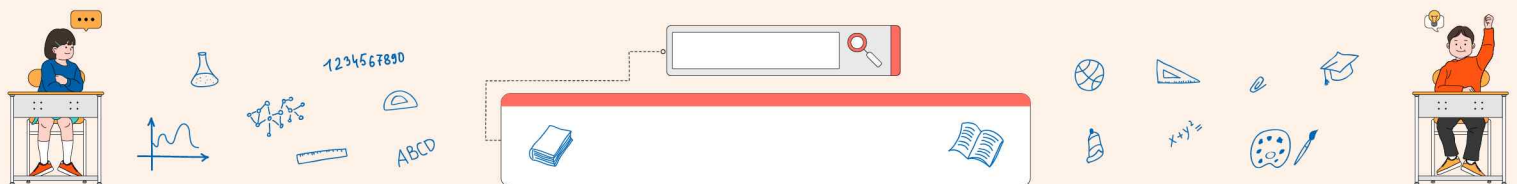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 04 다음 중 한국의 교사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를 우선 임용하다가, 위헌 판결로 인해 1991년부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을 실시중이다.
- ②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시도교육감이 시도별로 실시한다.
- ③ 같은 지역 교대 또는 사범대 졸업생에게 임용시험에서 지역 가산점을 부여해 우대하는 제도가 실시되다가 위헌 판정을 받고 2011년 폐지되었다.
- ④ 사립학교 경력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사립학교가 반발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사립 초중등학교 경력교사를 공립학교 교사 등 교육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는 1982년부터 실시되었다. 교원 봉급이 호봉에 따라 결정되므로 교원 경력 증가에 따라 학교 재정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이 제도는 사립학교의 경력직 교원이 퇴직하고 신규교원으로 대체하며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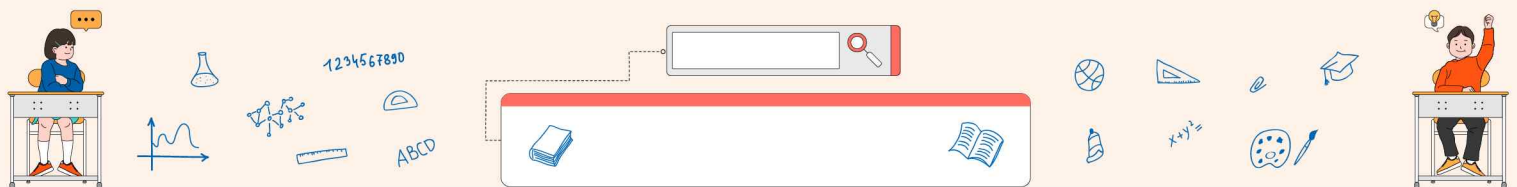
## 05 다음 중 한국 교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한국 초중등교원의 법정 연간 순수업시간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다.
- ② 한국 초중등교원의 초임 법정 급여 수준은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편이다.
- ③ 한국 초중등교원의 경력 15년차 법정 급여 수준은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편이다.
- ④ 한국 중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공립학교 급여 수준이 사립학교보다 월등히 더 높은 편이다.

**정답** ④

**해설** 한국의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 보수 수준은 공립학교와 비슷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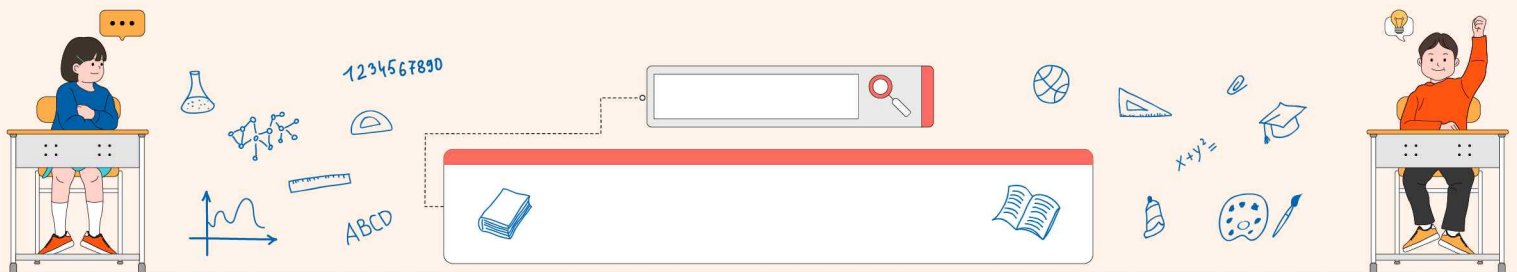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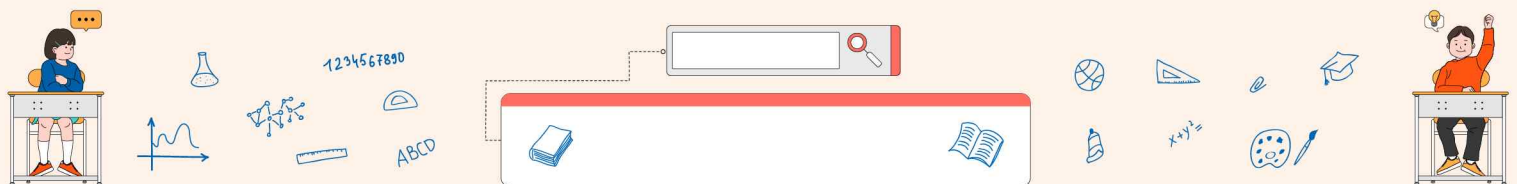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됩니다.

## 주제

강의 6-4 여주고등학교 김지용 교사 인터뷰를 봤을 때, 한국 교사들이 현재 교육 현장에서 직면한 과제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과제들은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을까요?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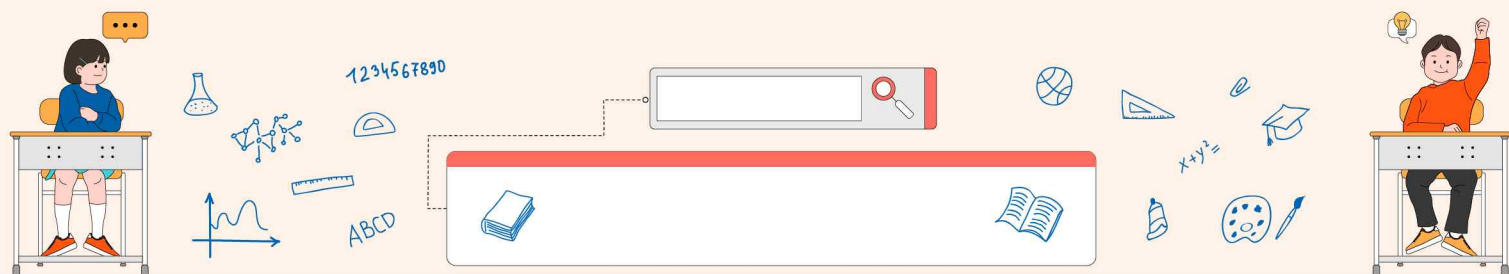
김지용 교사는 인터뷰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지향점, 학교 행정과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 인권의 강조, 교육복지 정책의 확대, 학생들의 창의성과 독창성, 정보통신기술의 변화,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소통,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각 사안에 대한 김지용 교사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김지용 교사의 견해에 대해 수강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까지 한국 교육에 대해 학습한 내용들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자료

### 도서

-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1998. 교육50년사. 교육부.
- 김영우·안귀덕. 1994. 한국현대초등교원양성교육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1994.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 - 개화기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1997.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 - 일제시대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1998.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I) - 해방이후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영상

- EBS Documentary (EBS 다큐). 교육대기획 10부작 학교란 무엇인가 5부,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https://youtu.be/4et61qvptyk>

- EBS Culture. 미래교육 플러스 - 대한민국 선생님들 지금\_#001

<https://youtu.be/ORoYVRCrTEc>

- EBS Culture. 미래교육 플러스 - 대한민국 선생님들 지금\_#002

<https://youtu.be/HVacmAC6iKM>

